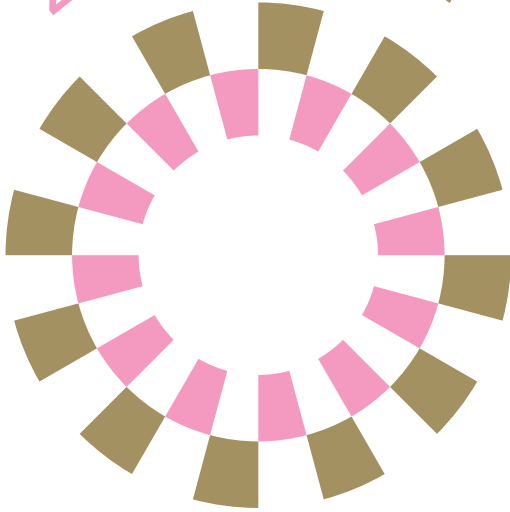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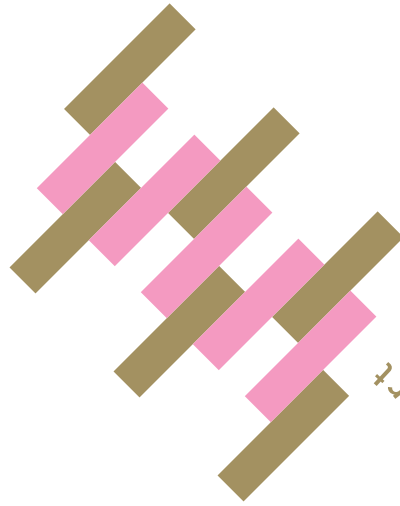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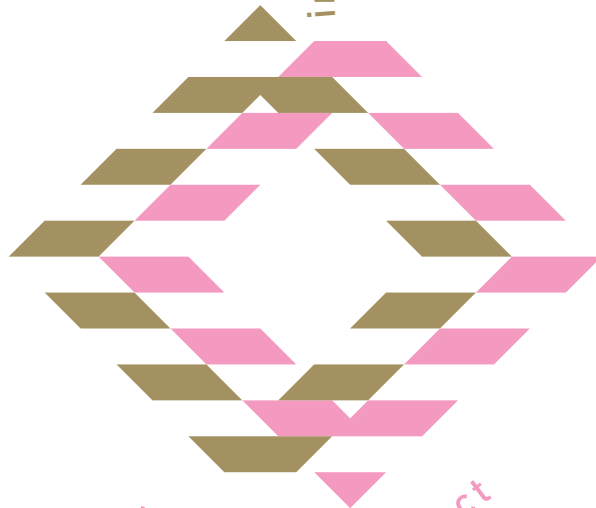
2013 예술이 흐르는 공간



공공 미술  
프로젝트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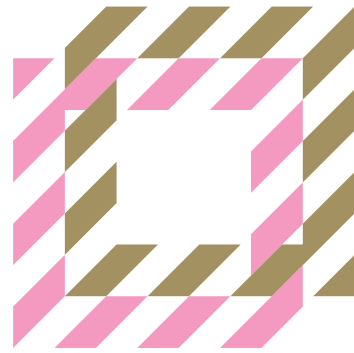


public art project

2013

예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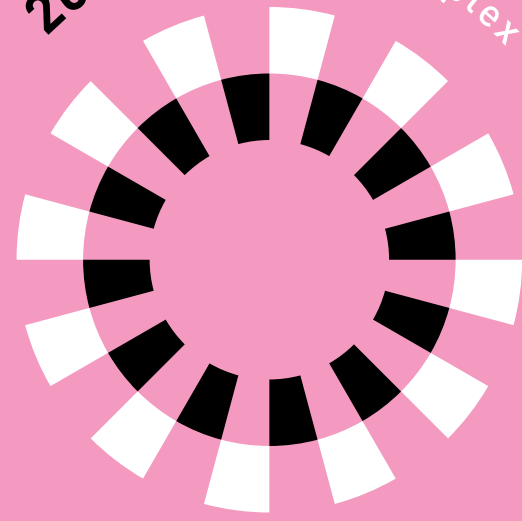
흐르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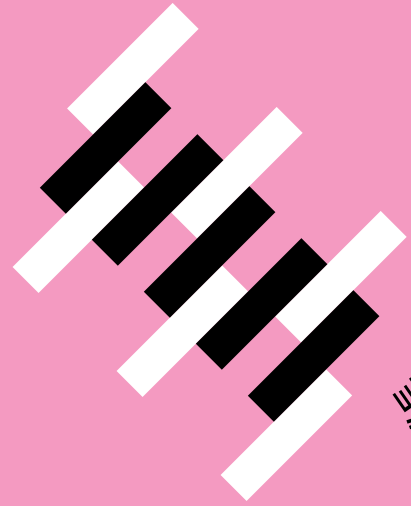
박은선  
이승원  
하태임

공공미술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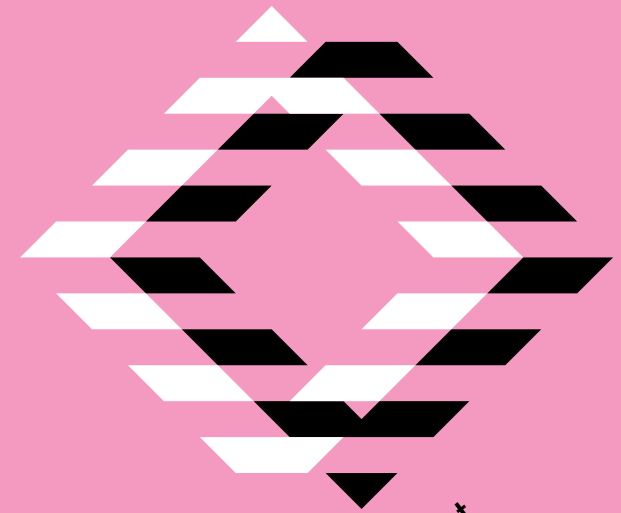
2013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예술이 흐르는 공간 공공미술 프로젝트



public art project

# 2013

# 예술이

# 흐르는

# 공단

# 공공미술

# 프로젝트

## 2013

예술이 흐르는 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내 공단 지역과 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공연과 근로자 문예 동아리 및 CEO 문예 아카데미를 지원하고 공공미술을 선보이는 '예술이 흐르는 공단'을 통하여 일터라는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화이트 큐브형의 미술관이라는 장소를 뛰어 넘어 생활공간 안에서 접할 수 있는 미술로, 보는 이로 하여금 현대 미술이 주는 즐거움과 감흥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작품을 통해 던지는 예술가들의 물음들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6 인사말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8 변화의 생성, 공공미술의 새 지대

김종길  
책임큐레이터

18 유기적 공간

작가 박은선  
평론 조숙현  
부천  
부천테크노파크

40 그레이트

작가 이승원  
평론 조두호  
파주  
갑우문화사

62 색채 환상곡

작가 하태임  
평론 이슬비  
파주  
삼광사

80 작가 약력

박은선  
이승원  
하태임

86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과정 / 일정

현수정  
큐레이터

94

찾아가는 공연

95

근로자 문예동아리 지원

96

CEO 문예아카데미

Contents

7 Greeting

Ohm Ki-young  
Presiden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13 The Creation of Change, The New Zone of Public Art

Gim Jong-gil  
Senior Curator

19 Organic Space

Artist Park Eun-sun  
Critical Essays Jo Sook-hyun  
Bucheon  
Bucheon Technopark

41 GREAT

Artist Lee Seung-won  
Critical Essays Jo Doo-ho  
Paju  
Design & Printing Group Gabwoo

63 Color Fantasy

Artist Ha Tae-im  
Critical Essays Lee Seol-bi  
Paju  
Samkwang Printing Company

82 Artist's Profile

Park Eun-sun  
Lee Seung-won  
Ha Tae-im

92 Industrial Complex, Becoming A Space Brimming with Art

Hyun Soo-jung  
Curator

## 인사말

###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은 2013년에도 부천테크노파크와 파주 문발공단에서 <예술이 흐르는 공간> 사업을 통하여 작가주의 공공미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의 경우, 최정화, 조민석, 김형관 작가에 더하여 박은선 작가가 ‘유기적 공간’을 구성하며 환상적인 작품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박은선 작가는 이곳을 꿈이 피어나는 곳으로 이미지화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은선 작가를 도와 페인팅 작업을 함께 하여주신 스텝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이 공간은 어제의 그 공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신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CEO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지켜보며 역시 예술가들은 매직 아이(Magic eye)와 매직 핸드(Magic hand)를 가진 분이란 걸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앞으로 오픈 에어 뮤지엄으로 조성된 부천테크노파크를 찾는 분들께 이곳이 예술의 샘과 같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2013년 올해에는 파주 문발공단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쁩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그 중에서도 공단에서 공공미술 작업을 한다는 것은 공공미술이 경기도 전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쌓여 공단에 다채로운 예술이 출렁일 때가 올 것이라 전망해 봅니다.

문발공단 도입부에 위치한 삼광사는 빨강, 파랑, 노랑 빛의 삼원색이 조화를 부려 환골탈태한듯합니다. 하태임 작가는 ‘색채 환상곡’으로 이곳을 새롭게 활짝 피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갑우문화사는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원력(願力)에 이승원 작가의 차력(借力)이 더해져 축원대로 ‘그레이트(GREAT)’ 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굽은 손을 녹이며 하태임 작가와 이승원 작가를 도와 페인팅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와 삼광사와 갑우문화사 임직원들의 성원이 있어 문발공단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시발점으로 하여 경기북부 산업단지에 예술이 널리 잔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Greeting

### Ohm Ki-young

Presiden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presented auteurist public art in Bucheon Technopark and Paju Munbal Industrial Complex in 2013 through the project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At Bucheon Technopark artist Choi Jeong-hwa, Cho Min-suk, Kim Hyung-kwan, and Park Eun-sun entertained visitors to the place, generating “organic space” and setting fantastic works.

Artist Park Eun-sun did her utmost for the imagination of this place where dreams bloom. The staff who helped Park’s painting work had a hard time. This space newly presented today is not the one of yesterday. The CEOs of the firms in Technopark Complex I, who backed up the artist to imagine a new world in a new dimension, made possible this space. I felt all the more keenly that artists are beings with magic eyes and magic hands. I wish the Bucheon Technopark created as an open-air museum for visitors to be a place like a spring of art.

I am also very pleased to execute a public art project at the Munbal Industrial Complex in Paju this year. This public art project in the northern area of Gyeonggi Province, especially at an industrial complex in this region, means public art can melt away into the entire Gyeonggi area. If such a project is to be repeated, the industrial complex will overflow with the carnival of art one day.

Samkwangsa, located at the entrance of the Munbal Industrial Complex appears completely changed with a harmony of three primary colors, red, blue, and yellow. Artist Ha Tae Im makes this place fully bloom with Color Fantasy. I believe Gabwoo will be “GREAT” through its workers’ wishes and artist Lee Seungwon’s super strength.

The public art project at the industrial complex became practicable with many who helped artist Ha and Lee’s painting work, and the support of executive and staff members of Samkwangsa and Gabwoo. I hope this project will serve as momentum to ingrain art into the industrial complexes of the northern Gyeonggi area.

## 변화의 생성, 공공미술의 새 시대

김종길 \_ 책임큐레이터

### 한뼘갤러리 / 예술이 흐르는 공간 / 공공미술프로젝트

2006년 10월, 경기도미술관이 개관하고 난 뒤 가장 먼저 고민했던 문제의식 중의 하나는 경기도가 설립한 도립미술관이 경기 서남부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는 물리적 거리감이었다. 수부도시 수원이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도민 접근성이나 인지도 면에서 최적의 도시라면, 안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다. 경기도미술관이 수행해야 할 공공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술관이 안산시에 동지를 튼 이상 안산시민을 비롯해 시흥시, 화성시, 수원시, 안양시 등 주변 인접 도시의 도민들을 관람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타깃 전략을 1차적으로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술관을 중심에 두고 파동의 동그라미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물리적 거리감을 해소해 나간다고 할 때 가장 좋은 1차 타깃 도시가 바로 그 도시들이었기 때문이다. 미술관으로부터 1시간 거리 내에 있는 이 도시들의 인구는 안산 71만, 화성 53만, 시흥 40만, 수원 115만, 안양 60만, 광명 35만으로 374만 명이나 되었다.

2007년 경기도미술관은 홍보 접근성이 좋은 전철역을 대상으로 ‘한뼘갤러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프로젝트형 작업을 통해 미술관의 전시 사업을 미술관 밖으로 넓혀가겠다는 것과 둘째는, 그와 더불어서 경기도미술관이 개관했고 안산시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것이었다. 공단역에 처음 제작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를 개조해 만든 김시하의 <긍정적인 정원>(2007)은 그런 미술관의 기획취지에 아주 잘 맞는 작품이었다.

2008년에는 안산역 실내 창문에 시트작업으로 제작한 이정민의 <경기도미술관, 그리고 안산>이 설치되었고, 2009년에는 중앙역에 이다의 <Walking Woman>이 벽화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SMSM(sasa[44], 박미나, 슬기와 민의 프로젝트 그룹)의 공공미술 작업 <색깔의 힘>이 안산시 단원보건소 1층 메인로비와 영유아 접종실에서 진행되었다. 미술관은 3년에 걸쳐 다중이용 시설과 시민들의 플랫폼 공간인 전철에 프로젝트를 집중함으로써 미술관 사업의 확장성은 물론, 미술관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한뼘갤러리는 김시하의 작품에서부터 그것이 공공미술/공공디자인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전철역을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놓는 순간부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그 공간이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공공성이었고, 게다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기획주체 또한 공공기관인 도립미술관이었다.

이러한 공공성의 인식은 처음 한뼘갤러리를 구상했을 때 논의되었던 ‘작은 문화공간(한뼘과 갤러리의 상징성)’ 만들기의 소극적 의미를 보다 적극적인 공공개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SMSM의 작업이 그런 맥락에서 좋은 사례가 되어 주었다.

2010년은 공공미술로서의 한뼘갤러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재정의하면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장을 시도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이윤정의 공공미술 작업 <형형색색 동물원>이 안산 동산고등학교 내 계단 복도에 설치되었고, 이윤미와 김재성이 의정부과학도서관에서 <낮선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공간 특정적 미술 작품을 제작 설치했으며, 강익중과 이해원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에 <서로가 함께>라는 작품을 설치했다.

경기도미술관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 진행한 한뼘갤러리는 경기도미술관이라는 공공의 기관이 공공의 공간/장소에서 수행한 ‘생활공간 개선형’ 작가주의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목적과 선택된 공간/장소의 정체성이 작품 제작단계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협의구조가 작품이 설치되고 또는 철거될 때까지 이어졌다는 측면에서는 협의에 따른 최소한의 거버넌스형(governance style) 공공미술일 수도 있다. 작품의 개념과 형식은 철저하게 작가에게 맡겨졌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술관과 작품이 설치될 공간/장소와의 협의구조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협의구조에서 커뮤니티는 거의 역할이 없거나 매우 느슨한 상태로 존재했다.

2011년과 2012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뼘갤러리는 한뼘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꾸어 경기문화재단이 기획한 <예술이 흐르는 공간 2011>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추진목적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공론화 했다. 전철역, 학교, 도서관, 보건소의 공적공간 내부에 ‘한뼘’을 충족시켰던 작은 규모의 공간/장소도 국가산업단지라는 대규모 공단으로 대상지도 바뀌었다. 물론 그 만큼 예산도 크게 늘었다. 기획을 담당했던 경기도미술관 교육팀은 사업 대상지였던 안산 반월공단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보았다.

그동안 프로젝트 협의구조에서 역할이 없었던 커뮤니티를 협의구조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적극적인 검토였다. 그러나 반월공단에는 일하는 노동자만 있을 뿐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그들 스스로의 문화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은 곧 커뮤니티의 부재를 의미했다. 반월공단의 노동자들은 퇴근 후 안산역 건너편 다문화 지구의 식당가나 유흥시설에서 또는 공원과 거리에서 국가 단위로 모여 친목을 도모할 뿐이었다. 아시아 각국에서 건너 온 약 5만 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의 커뮤니티를 반월공단의 노동자 커뮤니티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반면, 2012년에 진행된 부천 테크노파크는 상황이 달랐다. 1970~80년대와 달리 노동자 문화가 거의 사라졌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국내 최초의 아파트형 공단인 테크노파크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아리 문화가 잘 남아 있었다. 수 천 명의 노동자들이 아파트 내 공장들로 출근해서 함께 밥 먹고 일하고 퇴근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짧은 휴식과 장보기를 하고 퇴근 후에는 각자가 속한 동아리에서 문화 활동을 즐겼다.

## 공단 / 작가주의 공공미술 / 거버넌스(governance)

한뼘갤러리에서 예술이 흐르는 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로의 변화를 언급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경기도미술관과 경기문화재단은 올해로 7년 째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해 오고 있다는 것, 둘째, 지역 내 공공의 공간들에서 대규모 산업단지로 대상지를 넓혔다는 것, 셋째, 산업단지로 넓히면서 예산 매칭과 작가주의 공공미술의 방향성을 정립했다는 것, 넷째, 사업의 확장성과 더불어 연속성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 다섯 째, 미술관에서 재단으로 기획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 중 공공기관이 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해야 하는지와 작가주의 공공미술은 왜 필요한지가 커뮤니티형 공공미술이나 사회실천적 공공미술 담론과 다소 다른 지형일 수 있다.

공립미술관과 공공 재단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직접 사업으로 기획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기관이 공공미술을 기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개념의 과도한 성과주의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나설 경우 작가들도 기관의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소극성을 엿보이기도 할 것이고, 큐레이터도 자기가 속한 기관과 작가, 프로젝트 대상지의 주체들 사이에서 영민하게 줄타기하려는 함정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007년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경기도미술관은 애당초 공공적 프로젝트이면서 동시에 '대의 홍보성' 기획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을 뿐더러, 시나브로 홍보성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에 몰두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조금씩 키워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것을 '생활공간 개선형' 공공미술에서 '거버넌스형' 공공미술로 전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듯 거버넌스란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이며 조정과 협력이다. 경기도미술관과 경기문화재단이 공공의 기관이면서 동시에 프로젝트의 기획주체라면, 미술관 큐레이터는 기획주체가 아니라 그 기획의 수행자이다. 현장의 공공미술 기획자와 미술관 큐레이터의 역할이 서로 다른 점은 거기서 비롯된다. 현장기획자는 자신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지만 미술관 큐레이터는 기관의 대리자로서 조정과 협력의 매개자인 것이다. 2012년까지 한뼘갤러리와 예술이 흐르는 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추진했던 **여경환 큐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역할을 정리한 바 있다.

**"사실 예술이 흐르는 공단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있어서 전체 기획의 개념적 제시를 하는 큐레이팅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적합한 공단을 찾아내어 설득하고, 작품이 설치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가장 적합한 미술가를 섭외하며, 그 미술가가 제안한 작품을 공단에 설득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처음이자 끝이다."**

내가 아는 한 그는 공단을 설득하고 장소를 찾고 미술가를 섭외하고 작품을 제안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그는 전체 기획의 개념적 제시를 하는 큐레이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설득하고 찾고 섭외하고 제안하는 그 과정의 수행성에서 큐레이터의 큐레이팅과 프로젝트는 윤곽을 잡아가고 선명해졌다. 그래서 예술이 흐르는 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연역법에 따른 '결과제시형' 프로젝트라기 보다는 귀납법에 가까운 '과정수행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견제로서의 민주주의 틀 안에서 신뢰와 타협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듯이, 예술이 흐르는 공단 공공미술프로젝트 또한 공단의 기업주와 작가, 재단/큐레이터가 신뢰와 타협으로 합의해 나가지 않으면 결코 완성될 수 없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아담 웨보르스키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는 견제의 틀"이라 말하면서 "민주주의는 불확실성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을 바꿔서 읽으면 거버넌스는 공공미술프로젝트를 견제하는 틀이며 수행과정의 불확실성을 제도화 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거버넌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의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비토쿠라시 (vitocracy: 거부민주주의)** 가 등장하듯이, 만약 거버넌스의 수행적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비토블릭아트 (vitoblicart: 거부공공미술-필자)** 같은 거부감이 발생했음지도 모른다.

반월공단에서의 경험은 작가주의 공공미술이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의 공공미술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거버넌스라는 합의구조를 갖추고는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하는 것은 작가가 대상지 분석을 통해 어떤 미학적 공공성을 구현할 것이냐가 최대의 관건이었다. 여경환 큐레이터가 고백했듯이 대상지에 가장 적합한 미술가를 리서치하고 섭외하는 것은 그래서 그 자체로 프로젝트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작가는 공간/장소를 답사하고 공간 특정적 환경들을 분석하며, 기업주와 큐레이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체함으로써 대상지에 구현될 작품의 공공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 공공성이라는 것이 작가가 작가로서 지향해 왔던 자신의 미학적 형식이나 태도와 다른 것이어서는 또 안 되었다. 우리는 공장이나 기업주/노동자를 위한 공공성, 그 장소/공간이 차지하는 지역사회 내의 공공성, 예술의 사회적 참여로서의 공공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 역할로서의 공공성, 다수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심미적 예술 환경으로서의 공공성이 결과적으로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완성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 공공미술 / 바깥-열린 미술관

2013년의 기획은 다른 가능성의 모색과 함께 시작되었다. 매 년 새로운 공간들, 장소들을 찾아 확장해 왔던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연속사업의 사례를 만들면서 공공미술의 공공성 담론을 일종의 바깥 미술관 (Open-Air Museum)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2011년과 12년, 안산 반월공단에서 네 곳을 진행 했으나 장소가 다른 네 개의 기업이었다. 그런데 지난 해 부천 테크노파크에서는 동일 장소에 세 개의 작품을 설치했고 올해에도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추가로 진행될 공간도 같은 장소였다.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테크노파크 1단지 공간은 노동자들의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다. 지난해 건축가 조민석과 작가 최정화는 <꽃방석>과 <당신은 꽃입니다>로 그 공간의 공동체성을 활발하게 유인하는(Affordance) 작품을 제작 설치했고, 김형관은 1단지 지하 통로에 벽화 작품 <달리는 파사드>를 제작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조민석과 최정화의 작품이 있는 공간 전체를 1단지 노동자들과 시민 모두를 위한 '바깥-열린' 미술관 개념으로 재정의 한 뒤, 시각적 판타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작품을 제안했다. 지난해의 프로젝트를 1단계로 수렴할 경우 2단계인 올해는 공공미술 작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동시에 그 공간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작업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1단계 작품과 2단계 작품이 그 공간에서 모두를 위한 미술로서 공공적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3단계인 2014년의 작업들은 보다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예술 생태정원을 재조성하는 일과 커뮤니티를 위한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작업들이 그것이다. 바깥 미술관 개념은 테크노파크의 공공미술프로젝트 공간을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공미술 미술관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올해 떠올린 개념이다.

Open-Air Museum은 일반적으로 '야외 박물관/미술관'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바깥'과 '열린'의 개념으로 전유했다. '바깥'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장의 바깥이고, 시민들에게는 굳이 공장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조민석과 최정화의 작품만으로는 그 공간의 공동체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데 다소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진행된 박은선의 작업은 두 작가의 작품과 조화를 이루면서 바깥 미술관의 공간성 및 시각적 비주얼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내용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올해 처음 진행된 파주 문발공단에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부천 테크노파크에서 얻은 교훈을 적절히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수차례 답사를 통해 우리는 파주 문발공단 작업도 연차적으로는 바깥 미술관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특히 문발공단은 18개 업체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단지역이어서 향후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공단이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이 될 수도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맥락에서 올해 진행된 삼광사와 갑우문화사는 우리 프로젝트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의제를 제공했다. 첫째는 인쇄/출판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은 공단지역인데, 다행히 대주제를 색(色)과 빛(光)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 둘째는 예산 매칭과 기업의 적극성이 있어야만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또한 다행히 공단 입구 쪽의 두 기업이 참여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하태임 작가와 이승원 작가는 삼광사와 갑우문화사의 기업 정체성은 물론, 인쇄 색상지의 칼라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색상으로 문발공단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변신시켰다.

거버넌스의 핵심은 창조적 협동이다. 올해 경기문화재단은 배영환과 함께 기획한 컨테이너라이브러리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공기관이 예술가와 창조적으로 협동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술이 흐르는 공단 공공미술프로젝트도 각각의 주체들이 창조적 협동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다. 올해 우리는 공공미술이 바깥 미술관이 될 수 있는 새 가능성을 보았고,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새 지대를 구축했다. 2014년은 공공미술의 새 지대가 거대한 공단미술관의 거점들로 재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 The Creation of Change, The New Zone of Public Art

Gim Jong-gil \_ Senior Curator

### One Handspan Gallery / Public Art Project /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After the opening of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 MoMA) in October 2006, one of the problems we were most concerned about was its physical distance: the museum founded by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is located at the southwestern tip of Gyeonggi Province. Whereas Suwon was an optimal city for carrying out Gyeonggi Province's cultural and artistic policies in terms of accessibility and awareness, Ansan had more disadvantages than advantages in many respects, considering the public role a museum has to assume.

And yet, as the museum has nestled in Ansan, we should above all establish strategies to draw residents from its neighboring cities such as Siheung, Hwasong, Suwon, Anyang, and others. When we tried to solve the problem of distance by expanding a circle from the center of the museum, the first targets were such cities. The populations of the cities that are within an hour ride from the museum are as follows: the total population of these cities is less than 2,740,000 persons including 710,000 in Ansan; 530,000 in Hwasong; 400,000 in Siheung; 600,000 in Anyang; and 350,000 in Gwangmyeong.

In 2007, the Gyeonggi MoMA launched the One Handspan Gallery, mainly at subway stations with excellent accessibility. The project had two objectives: the first one was to expand the museum's exhibitions outside of the museum through project-type work; and the second was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the museum in Ansan. Kim Siha's Affirmative Garden (2007), remodeled from a public telephone booth at Gongdan Station, was a work that really matched the purposes of the project. In 2008, Lee Jung-min's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d Ansan was made with adhesive sheets stuck on Ansan Station's indoor windows, and in 2009 Ida's Walking Woman mural was set up in the Central Station. The Power of Color, a public artwork by SMSM, was executed in the main lobby and Infant Vaccination Room on the first floor of the Danwon-gu Public Healthcare Center in Ansan. The museum worked very hard to expand the museum's practices and to promote the museum more widely over a period of three years by executing projects at subway stations, facilities used by the general public and civic platform space.



The One Handspan Gallery's intention to be a public art or public design project was clarified by Kim Siha's work. What we had to concern ourselves with from the point we decided to use subway stations was the space's public-ness. Along with this, the creator of the project was a public institution. An awareness of such public-ness served as momentum for the museum to shift from the passive meaning of a "small cultural space" we had discussed when we launched the project to the active concept of public-ness. In this context, SMSM's work was a good example. In 2010, we redefined the project aggressively and made an attempt to expand it. Lee Yun-jung placed her public art work *The Colorful Zoo* at Dongsan High School in Ansan, Lee Yun-mi and Kim Jae-sung displayed *Travel to a Strange World* at the Euijeongbu Science Library, and Kang Ik-jung and Lee Hae-won installed the work *Together* at Jangan-gu Public Healthcare Center in Suwon.

The One Handspan Gallery carried out by the Gyeonggi MoMA from 2007 to 2010 can be defined as a "living space improvement-style" auteur public art project a public art museum conducted in a public space/place. In a narrow sense, it can be called a governance-style public art project in that its purpose was to promote the museum and the public spaces used required continued consultation with city governments. Although the artists were left completely free to choose their works' concept and form, their work could only be set up through a consultation system between the museum and the place where the artworks were to be installed.

The project was carried out in 2011 and 2012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Renamed the One Handspan Project, the One Handspan Gallery went ahead as part of the project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redefined as a "public art project". The venues for the project have changed from "one handspan-size" small spaces/places in public spaces such as subway stations, schools, libraries, and healthcare centers to large-scal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With this, its budget has sharply increased. The Gyeonggi MoMA Education Team responsible for designing the project surveyed the Ansan Banweol Industrial Complex, the object of the project, from diverse angles.

The project aggressively tried to draw a community that had little role to play in the consultation system. Initially, workers in the Banweol Industrial Complex had no culture of their own. After work, they just meet and chat with one another at restaurants or entertainment facilities in the multi-cultural zone opposite Ansan Station. A community of about 50,000 migrate workers from other Asian countries cannot be called the workers' community of the industrial complex.

On the contrary, the project carried out in Bucheon Technopark in 2012 differed from this. Despite my judgment that a worker's culture had almost disappeared, the workers' club culture was well preserved in Bucheon Technopark, the nation's first apartment-type industrial complex. Thousands of laborers go to work together and leave their plants in the apartment-style buildings. They enjoy relaxation and shopping during lunch time, and cultural activities at the clubs they belong to after work.

## Industrial Complex / Auteurist Public Art / Governance

There are several reasons that we men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One Handspan Gallery into the public art project,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The reasons are as follows: the direct co-host of a public art project by the Gyeonggi MoMA and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expansion of target areas from public spaces in the region to large-scale industrial complexes; budget increase reflecting the expansion of the project, and setting of the direction of the auteurist public art; arrangements for the project's expandability and continuity; and change of the subject of planning from the museum to the foundation.

It is very rare for a public art museum and a public foundation to organize a public art project as their main business. The reason for this is simple: when a public institution designs a public art event, it often excessively tends to obsess over results deriving from the concept of public-ness. When the Gyeonggi MoMA launched this project in 2007, the museum had no intention to conceal the fact that the art event was a public project and designed to have a promotional purpose.

I think this is the changeover from "living space improvement-style" public art to "governance-style" public art. As is widely known, governance is continuous conversation, negotiation, medit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parties interested for solving a problem. If the Gyeonggi MoMA and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re public institutions and the subjects of curating the project, the museum curator is not the subject but the practitioner of such curating.

Any difference between public art curator and museum curator derives from this. A curator at a scene is "an institution" that has his or her own responsibility and right whereas a museum curator is a mediator for arbitration and collaboration as proxy for an institution. Curator *Yeo Kyung-hwan* who successfully carried out the One Handspan Gallery and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project until 2012 commented on his role as follows:

"Curaing for the project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is in fact not to present the concept of the project as a whole. The beginning and end of such curating is to persuade a proper industrial complex, look for a place suitable for setting a work of art, cast an appropriate artist, and present the work the artist proposed to the industrial complex for persuasion."

As far as I know, he was devoted to his role: persuading industrial complexes, looking for places, casting artists, and proposing artworks. Although he mentioned that there is no curating of presenting any concept of the project as a whole, his curating and project got their basic outline and became distinct through the performativity of a process of persuading, finding, casting, and proposing. Accordingly, the project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is "a process performing-type project" verging on induction rather than "a result presentation-type project" verging on deduction. As governance brings forth some result through confidence and compromise in the frame of democracy, the public art project could not be completed without confidence and compromise among enterprisers, artists, and curators.

Adam Przeworski, a professor of New York University has advocated that "Democracy is a system of institutionalized uncertainty," stating that "Democracy is a system of checks." If rephrased this, governance is a checking frame of public art projects and a device institutionalizing uncertainty in a process of performance.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could secure result of a public art project by faithfully fulfilling its role of governance. As "vetocracy" (veto-democracy) emerges when uncertainty in democracy increases, "vetoblicart" (veto-public art) may arise if we do not follow the performative role of governance.

The experience we had at the Banweol Industrial Complex enabled us to realize auteurist public art is the most suitable form of public art. An overarching significance was what aesthetic public-ness artists embody through an analysis of the target place. As curator Yeo Kyung-hwan confessed, looking for and casting artists most suitable for the places of the project was half the project per se. The artist chosen for the project has to secure public-ness of the place where his or her work is to inhabit through a field trip to such space/place, an analysis of its space-specific environment, and collection of enterprisers and curators' opinions. Such public-ness should not be something antithetic to his own aesthetic form and attitude he has pursued as an artist. That is why we wished public-ness for enterprisers and workers, public-ness within a local community, public-ness as art's social engagement, public-ness as a public role played by a public institution, and public-ness as an aesthetic environment offered to many citizens can be attained after all through his work.

## Public Art / Open-Air Museum

The project of 2003 began with an exploration of another potential. The public art project extended to new spaces and places every year has the opportunity to merge discourse on public-ness of public art into the notion of an open-air museum. The project carried out in the Banweol Industrial Complex in Ansan was executed at the four different firms and places. The project in Technopark in Bucheon last year installed three pieces in the same place, and the project this year was executed as a continuous business also in the same place.

The Technopark Complex I in which the public art project is carried out is a place involved with workers' community activity. Last year, architect Minsuk Cho and artist Choi Jeong Hwa jointly produced and installed works such as You Are a Flower and Flower Cushion actively involving the space's communal character and Kim Hyung Kwan painted a mural Running Façade on the wall of an underground passage of the building. After redefining the whole space where Cho and Choi's joint work was placed as the concept of an open-art museum for workers and citizens all, we proposed works to maximize visual fantasies this year. If the project last year is referred to as the first phase of the project, as the second phase this year public artworks should be associated organically with each other, and embrace the space simultaneously. If works produced in the first phase and second phase excellently perform their public role as art for all in the space, works in the third phase in 2014 will be carried out more positively. The works will be recreating an art ecological garden and street furniture for a community.

I came up with the concept of an open-air museum this year to the effect that we recreate the space of the Technopark public art project into an open art museum open to all. The open-air museum commonly means the outdoor museum, but we used the word "open-air" as the notion like "outside" and "open". The "outside" is outside of the factory for factory workers, but "open" for citizens. In this sense, I thought Cho and Choi's work is rather insufficient in securing the space's communal character. Park Eunsun's work executed this year expanded the spatiality and visuality of an open-air art museum and was reborn as the work of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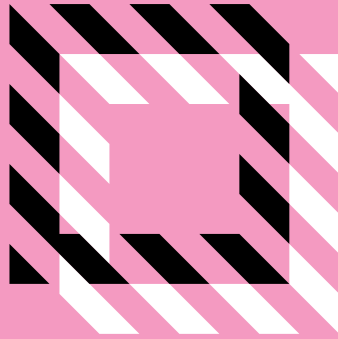
The public art project initiated in the Munbal Industrial Complex in Paju this year was an opportunity to properly apply a lesson we learned at Technopark in Bucheon. We realized the concept of an open-air art museum was also required for the project in Paju. If the project is annually carried out, we thought, the industrial complex could be a huge art museum since the industrial complex is in a small area where only 18 firms are situated. In this context the works for Samkwangsa and Gabwoo provided the project with a few overarching issues. First, the works offers an opportunity to see the subject as color and light as many firms pertain to printing and publishing. Second, the project could be carried out when the budget is suitable for the project and companies should be positive in the project. Fortunately, two firms showed intention to join the project. Artist Ha Tae Im and Lee Seungwon completely changed the two companies'

corporate identities and the Munbal Industrial Complex's image with flamboyant colors reminiscent of printing color plates.

The core of governance is creative cooperation.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won the top prize at 2013 Public Design Award with Container Library designed in collaboration with Bae Young-hwan. This was the case a public institution cooperated with an artist. Likewise,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is also a project whose result cannot be predicted without each subject's collaboration. We see potential for a public art museum to become an open-air museum this year, and have secured a new zone where we come true such possibility. In 2004 we will have the opportunity for the new zone of public art to be a strongpoint for an enormous industrial complex-turned-art museum.

# 박 은선

## 유기적 공간



벽 위에 페인트  
23.5x35.7m / 17.9x24.8m  
2013

# 부 천

## 부천테크노파크

대표적인 국내 1세대 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

준공연도

2000년

1단지

(총 4단지까지 단계적 조성)

면적

9,816평

입주 기업수

214개

대표업종

금형,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서비스업,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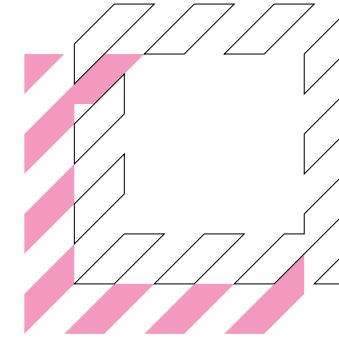
익숙한 공간을 이용하여 그 속에서  
또 다른 현실 공간을 만들어 내는  
작가 박은선은 선과 색면 분할을  
이용하여 2차원 벽면 공간을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  
거대한 공장동 외벽은 보랏빛과  
하늘빛으로 채색되어 높은 하늘까지  
연결되면서 예술적 공간으로 재탄생  
된다. 외부에서 작품을 지켜보는  
관람자는 마치 또 다른 세상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 같은 환영을 느끼게 된다.

작품에 보이는 여러 개의 손들은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연결하는 손으로  
작품 하단부에 보이는 나무(생명체)에  
양분과 에너지를 전달한다.

박은선 작가가 보여주는 유기적 공간은  
'생산 공간' 인 동시에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현실공간이다. 상가동은 에너지가 충만한  
원색의 색채로 구성되어 표현 되었는데,  
이것은 부천테크노파크에 입주한 다양한  
기업을 상징하며 그 사이사이의 동그란  
물방울 같은 구슬은 창조적인 마음과  
원동력 또는 기술이며 에너지의 원천을  
의미한다.

# Park Eun-sun

## Organic Space



Paint on Wall  
23.5x35.7m / 17.9x24.8m  
2013

# Bu Cheon

## Bucheon Technopark

The representative,  
1st generation Technopark  
in the nation

(Apartment type factory)

Year of establishment

2000

Complex 1

(Step by step construction  
up to phase 4)

Area

32,450 m2

Number of resident enterprises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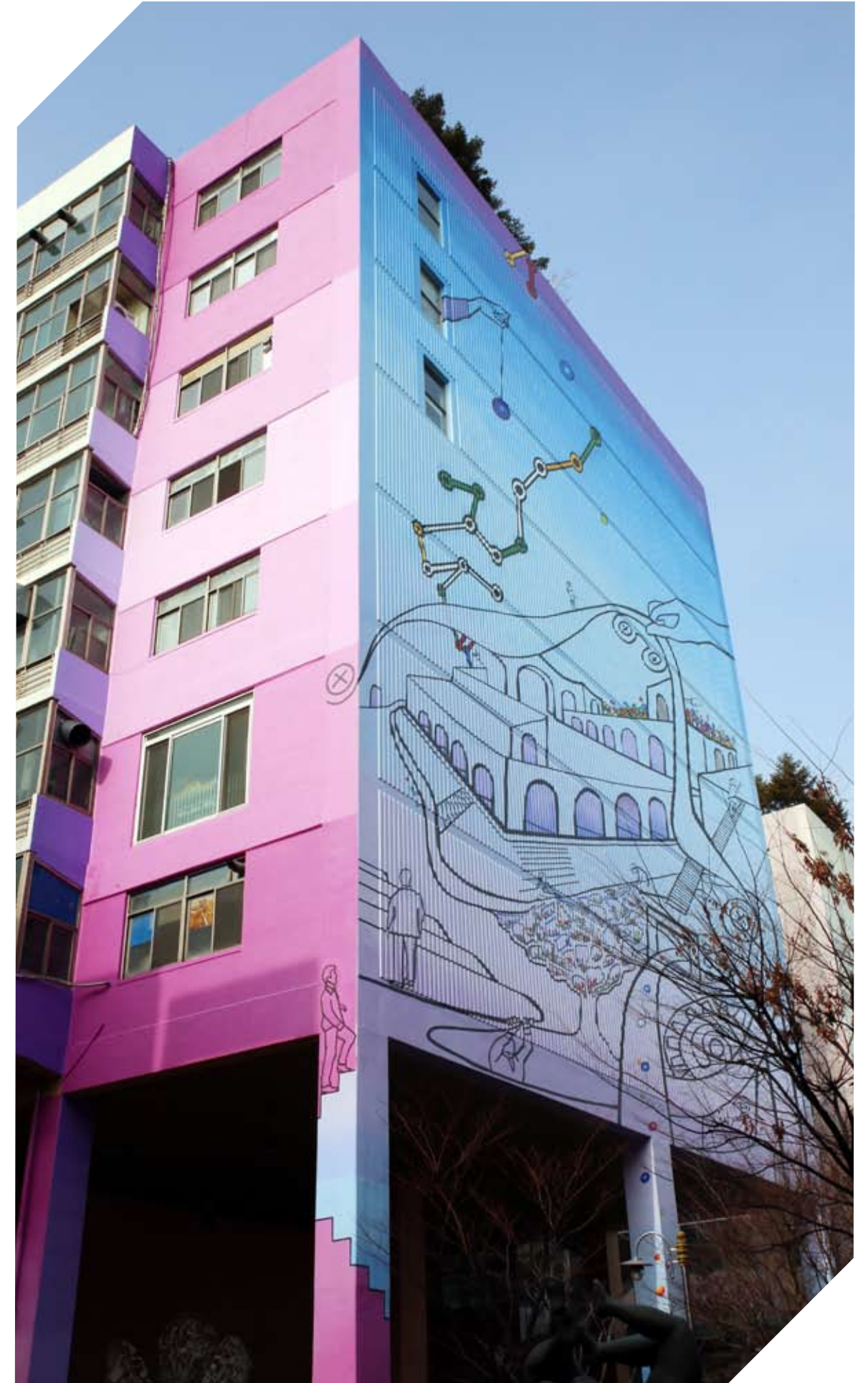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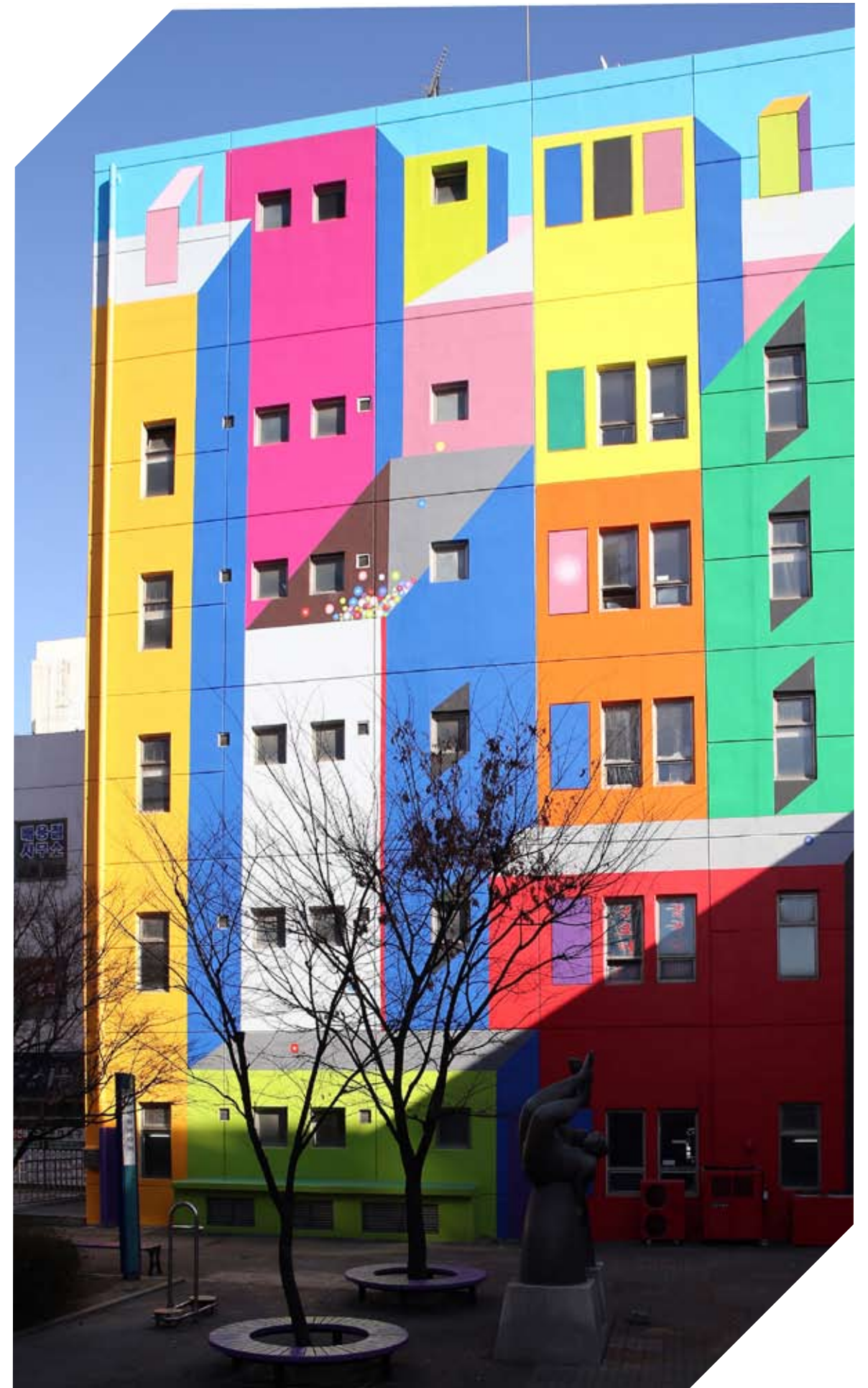
Tape release paper, Label sticker  
release paper, industrial packaging  
materials, etc

Artist Park Eunsun uses familiar  
space for her work and creates  
realistic space within it, transfiguring  
the two-dimensional space of a wall  
to three-dimensional space by adopting  
line and color-field division. The outer  
wall of a big factory building is reborn  
into an artistic space, painted in violet  
and sky-blue, extending to a lofty 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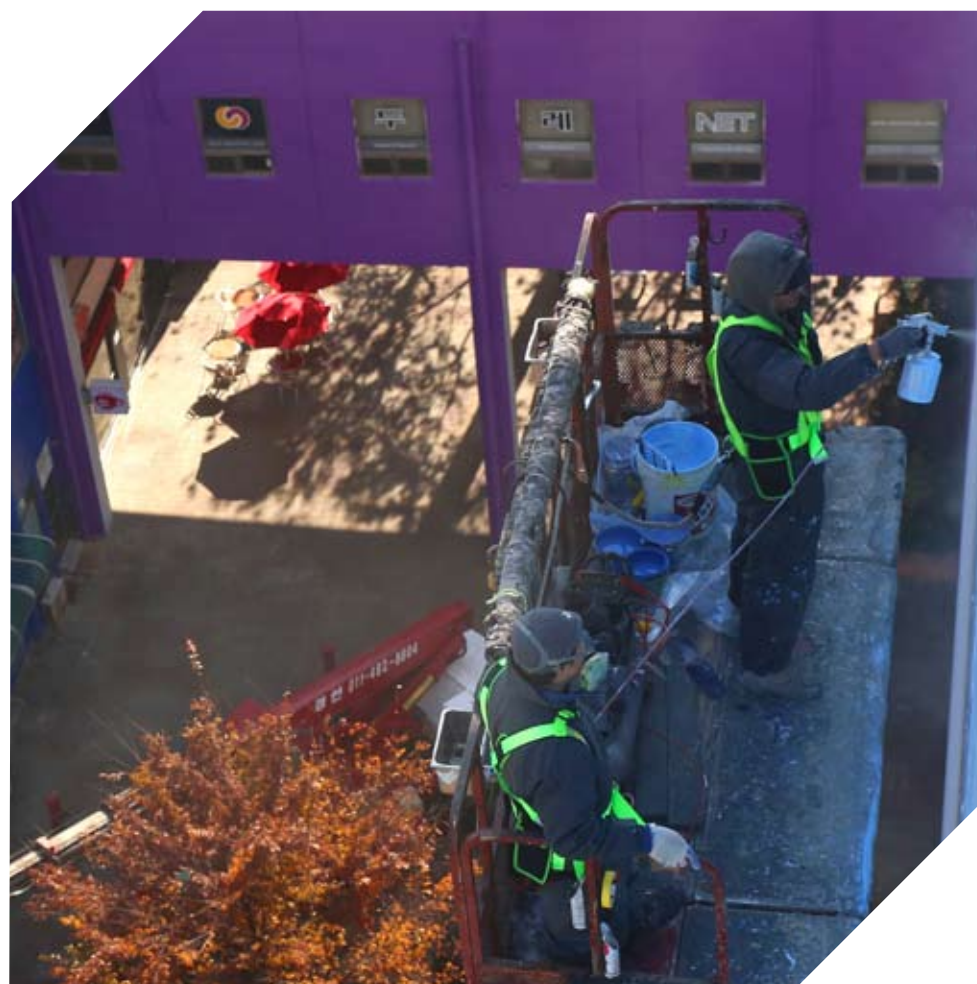
Viewers looking up at the work from  
outside feel the fantasy of being linked  
to another world. Hands depicted in  
this mural for making or connecting  
something, carrying nutrient and  
energy to a tree (life form), are visible  
at the bottom of the work. The organic  
space Park showcases is either  
"production space" or "realistic space"  
where our lives go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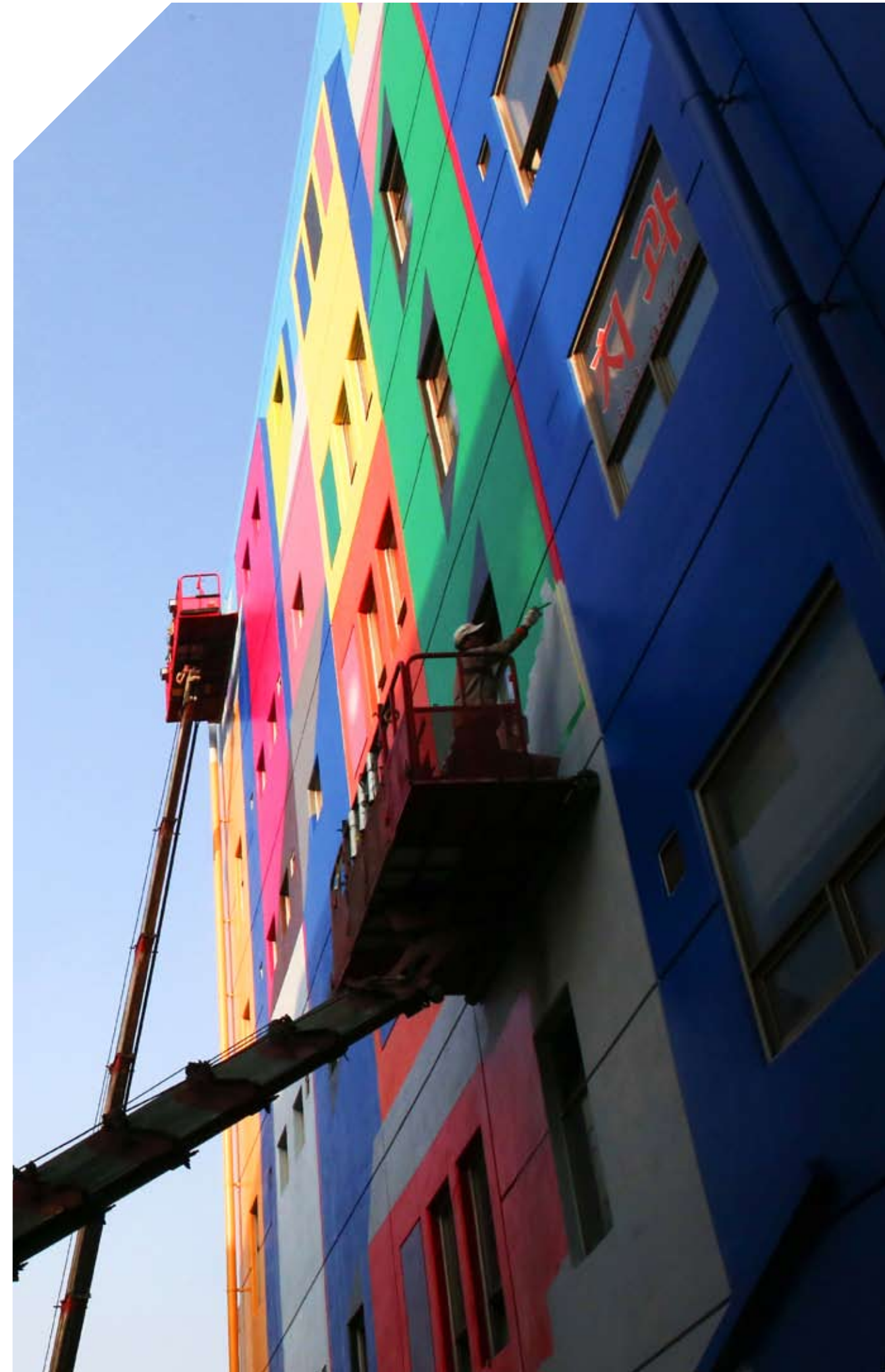
A shopping mall building is painted in  
primary colors full of vitality, symbolic  
of the diverse firms occupying Bucheon  
Technopark. The beads like water drops  
displayed between them stand for  
creative mind, driving force, technology,  
and source of en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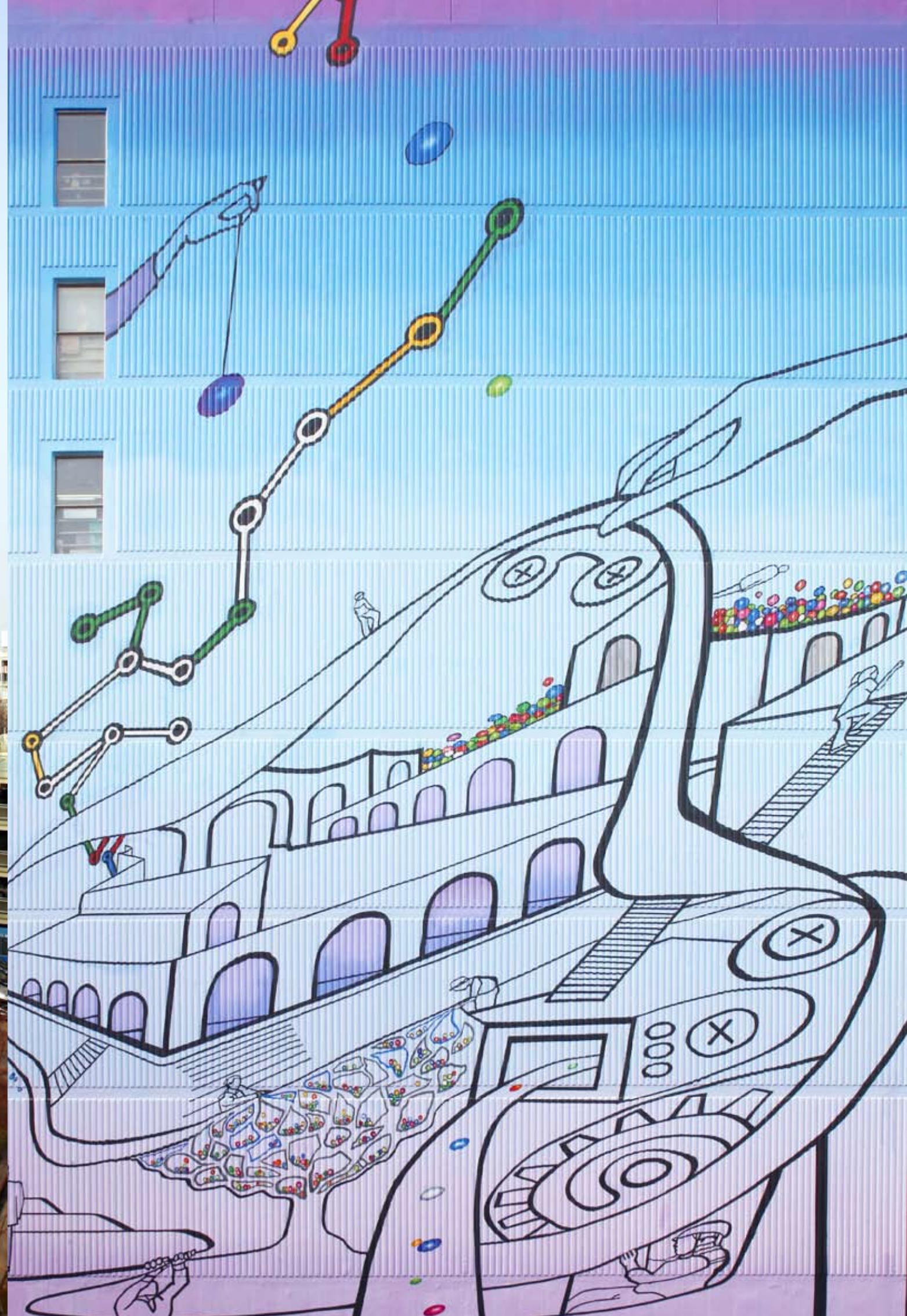














## 부천 테크노파크 1단지 벽화 프로젝트

조숙현 \_ 커뮤니티 아트 연구원

part 1.  
공간의 생산

프랑스 역사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èbvre)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다고 전해진다. 왜 역사는 시간으로만 구성되고 각인되는가? 왜 공간은, 현대국가를 오늘날에 이르게 한 정치적·사회적 생산물로 시간과 동등하게 간주되지 않는가? 후기 마르크스주의자인 르페브르의 공간철학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다분 입각하고 있는데, 그는 공간과 그 공간의 발생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규정하고, 생산된 공간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사회의 발생 기원을 재조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현대사회 공간은 국가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생산양식을 존속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디자인된 공간 계획(planification spatiale)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도시 공간은 자본의 논리에 따른 사회관계를 반영함과 동시에 공간이 자본주의 축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을 돕는 구조적인 모순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저작 『공간의 생산 La production de l'espace』(2000)에 의하면, 그는 공간 생산의 총위를 '공간적 실천', '공간 재현', '재현 공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간적 실천(pratique spatiale)은 인간의 일상 활동을 통해 형성된 지각된 공간(espace perçu)이다. 사람들은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고 거리를 이동하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공간 활동을 통해 사회적 삶을 구조화하며, 이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공간은 재생산된다. 공간 재현(representations de l'espace)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시각적인 기호와 이미지들을 함께 형성하는 체험 공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담론 권력에 의해 재단된 공간은 국가나 자본의 주문에 봉사하며, 재현을 통해 공간의 이데올로기를 지배한다. 마지막으로 재현 공간(espaces de representation)은 공간에 대한 이론적 담론과 상상력을 포함하며, 인지 공간을 구성한다. 예술가들이 소설, 영화 등의 디제시스(diegesis)에서 재현되는 공간이 이에 해당하며 이때 사용되는 다양한 기호와 전문 용어들은 예술가들의 상상력에 의해 해석된 공간으로 새롭게 재현한다. 르페브르는 공간적 실천, 공간 재현, 재현 공간의 세 가지 공간의 생산 방식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간의 생산에 개입하며, 물리 공간/사회적 공간/정신 공간으로 형성되는 현대 공간의 세 요소의 결합 관계가 변증법에 의해 유동적인 상호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르페브르의 이론적인 공간 논의를 참고로, 부천 테크노파크 1단지에서 진행된 박은선 작가의 벽화 작업 <유기적 공간>과 해당 공간을 직접 체험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 인터뷰와 작가 노트 등의 탐구 방법을 통해, 작품이 공간에게 **정동(affect)**<sup>1)</sup>의 희망을 전달하는 이 프로젝트를 다음 비평글을 통해 해독하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1) 접촉해서 흔적을 남긴다는 의미의 라틴어 'affectus'에서 기원했으며, 정신분석학 용어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벤야민의 19세기 파리 아케이드 프로젝트, 부산 동아대학교 권명아 교수의 <정념 커뮤니티와 감각적 결속을 통한 인간관계에 대한 고찰 : 20세기 공동체의 추이에 대한 비교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등의 프로젝트에서 엿볼 수 있는 사회학적인 맥락을 포섭하여, "사회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들의 공유된 감정(정념)과 정념과 사회와의 상호영향작용" 정도의 의미를 지칭한다.

## part 2.

2013년 11월의 어느 날, 나는 뺨속을 스미는 차가운 날씨와 르페브르를 저주하며 부천으로 향했다. 2시간이 넘는 초행길. 부천 시청역에서 내리자 눈앞에 펼쳐지는,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그리스 신전을 모방한 백화점, 8차선 도로를 달리는 버스와 자동차, 보도 위를 빼곡하게 채운 프랜차이즈 빵집과 식당, 커피숍은 서울에서 매일 마주하는 지리멸렬한 전경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초현실적이기까지 하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시각적인 상상의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르페브르의 자포자기적인 명제를 재현함과 동시에,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떤 정념과 정동을 충실히 반영한 풍경화이기도 하다. 매표소. 나는 고속전철로 2시간을 달려 똑같은 장소에 당도하는 시간여행을 했던 말인가.

택시를 타고 부천 테크노파크 단지로 진입하면서 창밖으로 내다본 풍경 역시 어느 흔한 아파트 단지의 전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재현하고 있는 사회적인 공간은 이렇게 천편일률적이다. 주차공간이 주차 빌딩으로 되어 있다는 게 조금 다를까? 노쇠한 아파트 빌딩들은 말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고, 한적한 보도블록 위 메마른 나무들만이 이따금 생각났다는 듯이 나뭇잎을 나부낀다. 메마르고 을씨년스러운 공간이다.

게다가 현장의 초겨울 날씨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매서웠다. 벽화가 설치되기로 한 아파트 동은 별이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공간이다. 벽면 페인트 작업을 위해 동원된 트럭 위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인부들의 작업이 한창이다. 오, 그리고, 벽면 모퉁이에 기적적으로 커피숍이 있었다. 커피 한 잔 생각이 간절했는데! 기적은 가끔 이렇게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일어난다. 후훗. 카페 안 따뜻한 의자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한결 여유롭게 공간을 감상해 본다. 이 아파트는 누군가의 주거공간이 아니라, 생활형 공단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현장 담당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단지를 걷는 사람들에게서 비평의 힌트를 얻고자 유심히 관찰해보았지만 어떤 차이점을 찾아낼 수는 없다. 옷깃을 여미고 종종걸음을 걷는, 현장의 차량을 훑듯 돌아보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젊은 여자들. 풍경도, 사람도 대체 왜 이렇게 점점 다들 똑같아지는 걸까? 나는 이들이 무표정에서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무감각으로부터 무엇을, 어떤 공간의 정념과 정동을 발굴해낼 수 있을까? 르페브르가 지적한 자본주의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공간 모순은 다름 아닌 다종의 재현 공간 생성 차단, 공간 재현의 획일적 만연에 다름 아님을 새삼 느낀다.

현장에서 운영상의 작은 차이가 빚어졌다. 벽 그라데이션 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붓질이나, 스프레이나를 두고 운영측간의 노선이 엇갈린다. 살짝 긴장되는 분위기. 게다가 오늘 밤을 기점으로 한동안은 비 소식이 있을 예정. 일단 비가 내리면 현장은 울 스톱이다. "어떻게든 작업은 완성되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해요"라고 말하는 작가의 여유가 경이롭게 들린다. 일단 벽화가 완성되고 나면, 이 삭막한 공간이 상실의 기원을 추적하기 어려운 생기를 한결 되찾게 될까? 이미 많은 도시 공간, 그 속의 '생활형 공장'의 이름하에 철저히 재편된 아파트 단지의 풍경 틈새를 뚫을 수 있는 예술의 힘이, 르페브르의 예술가의 재현 공간의 희망이 헛되지 않기를, 나의 기대는 사실상 이렇게 전개되고, 종결된다.

### part 3. 유기적 공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듯. 보는 시점, 각도가 달라지면서 보이는 이미지도 변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 사람과 사회, 환경과 공간의 특성과도 닮아 있다. 아울러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때때로 이러한 기준은 여러 기준들 사이에 경계를 만들고 전체를 잠식하기도 한다. 하나의 기준은 가치 이전에 늘 스스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계가 된다. …(중략)… 반듯하게 구성된 이미지는 방향을 바꾸고 시선을 돌리면 이내 왜곡되고 일그러져 보인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하고 과장되게 늘어난 사람들의 모습과 공간의 형태들, 이러한 심한 왜곡과 변형은 왠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다가온다. 우리에게 원래의 모습이란 무엇이며 과연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나 했던 것일까? …(중략)… 작품에 등장하는 손들은 무언가를 잡고 있거나 서로 다른 두 줄을 양 손으로 잡고 이어주고 있다. 마치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 곳곳에서 마지막 연결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들 개개인의 삶 또한 알게 모르게 유형무형, 이러한 중간자 또는 매개자들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 박은선 <유기적 공간> 작가 노트 중

부천 테크노파크 1단지 벽면에 설치된 박은선 작가의 <유기적 공간>은 기본적으로 관람자의 시점을 고려한, 착시효과가 동원된 작품이다. 관람자의 위치는 공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심터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고정되었는데, 이 시점이 작품을 기준으로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면에서 벽면을 바라보게 되면 띠 작업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것은 작가 노트의 첫머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준 사이의 경계'와 '하나의 기준이 내포하는 오류 가능성'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작품으로 대입할 것인가, 하는 작가의 근원적인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

박은선 작가가 처음 장소 답사를 통해 받은 인상은 '평범하다', '삭막하다' 등의 다소 부정적인 것들이었다. 따라서 작가의 첫 번째 과제는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으로 상정되었고, 창을 중심으로 블록화된 빌딩 벽면 채색 작업을 위해 밝고 생기 있는 색상이 대거 동원되었다. 색상 연출과 채색 작업의 목적은 다소 그늘진 공간의 분위기를 밝고 전환시키고, 나아가 공간이용자(부천 테크노파크 노동자)들의 정동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유기적 공간>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가상, 혹은 허구의 축과 현실의 축이 예술작품에서 어떻게 접점을 형성하는가, 라는 문제이다. 이것은 르페브르가 지적한, 권력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사회적 공간에 예술가가 어떤 재현 공간으로 저항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 작품에서는 건물 외벽의 구조와 특성 자체가 조형적 재료가 되어 컬러풀한 면들의 조합이 제3의 공간을 만들어 냈으며, 틈틈한 창문은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되 내부와 외부, 가상과 현실의 만남을 중매하는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창문 안과 밖의 시선은 같은 의미에서 지극히 이중적이며, 가상 속 현실/현실 속 가상의 이미지로 유기적인 관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다음으로 작가가 주안점을 둔 작품 요소는 공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인 노동자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작품 안에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처음 이와 같은 주문을 전달받은 작가는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상 어딘가와 누군가에 종속되어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공장이건, 사무실이건, 현장이건, 우리 모두는 생계를 위해, 혹은 그 너머의 무엇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던가. 다만 작가는 생활형 공장에서 노동에 지치고 힘든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벽화가 이것을 상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소망한다. 여기서 작가 노트에 언급되는 '손'은 벽화에서 중요한 알레고리로 형상화된다. 창밖으로 빼죽 내민 손, 컨베이어 벨트의 상부를 쥐고 있는 이 손은 언제든지 벽화의 풍경을 제어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동시에, 이 손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그렇다면 이 손은 누구의 손인가.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 이 손은 예술가인 동시에 노동자의 손이며, 또한 기업가의 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작품 곳곳에 구슬 같은 형상으로 알알이 박혀있는 원자들은 창작의 질료로 동원된다. 동그랗고 컬러풀한 무수한 입자들은 생명을 지닌 유기체로서 공간에서 분열되고 매개자들의 손에 의해서 재생산된다. 1층에서 2층으로, 또한 외부에서 내부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동선들은 창작 활동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상화하며 '노동자와 예술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창조의 주체이다'라는, 작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한다. 사회적 공간 계획으로 생성된 일상적 공간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마지막 티켓을 쥐고 있는 예술가 박은선의 공간 재현은, 벽화의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되어 씬 없이 연결되는 공간과 탈환되는 주체들의 인해, 이렇게 유기적인 재현 공간을 완성해낸다.

## Organic Space

Cho Sook-hyun

Artist Park Eunsun's Organic Space on the Bucheon Technopark wall works within optical illusion, and elemental consideration of viewer visual angles. The position of viewers is fixed as a viewpoint from the rest of the area where space users come in and out most frequently. As this viewpoint is slanted, the band shapes of the work appear twisted and distorted, is seen from the front. This is inextricably bound up with her underlying concern about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border between standards" and the "possibility of fallacy connoted in a standard" she mentioned at the opening of her statement, and also how to apply this to her work.

When Park first made a survey of the place, she received a rather negative impression that the place is "common" and "dreary". The assignment she had was to breathe vitality into the space. To do this, bright, lively colors were adopted for the building wall blocked with a window as the center. Her display of colors and coloring-work aims to change the rather shadowy atmosphere of the space brightly and appease space users' emotions. One of the significant issues in Organic Space is how to form a contact point between the axes of imagination or fiction and reality.

This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 of what reproduced space an artist resists within social space armed with the power ideology Henry Lefebvre pointed out. The structure and feature of the building's exterior wall becomes a modeling material in this work, and the combination of colorful planes engenders a third space. The window works as a medium mediating encounters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imagination and reality, while maintaining its original function. In this sense, gazes inside and outside the window is twofold, and organic relations remain balanced with a realistic image in the imagination and an imaginary image in reality.

Another matter Park emphasizes is how to reflect such users' identities through the work. When first requested to do this, the artist felt embarrassed since we all live in modern times and are all laborers subordinated to somewhere or somebody. Aren't we all people working for a livelihood or something beyond it, in a factory, office, or scene? Realizing that factory workers weary with toil become aware that they assume a significant role in society, the artist wishes her wall painting to be a remainder of t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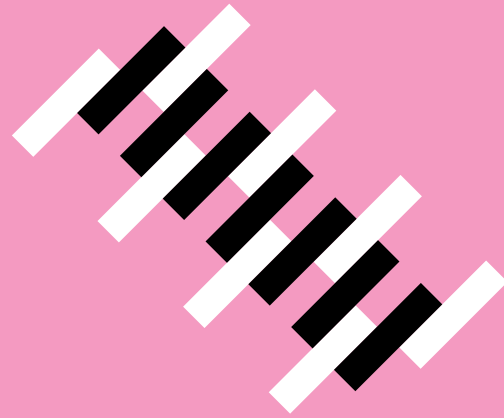
The "hand" mentioned in the artist statement is modeled as a crucial allegory in this mural. The hand protruding from a window, the hand grabbing the upper part of a conveyer belt, signifies it many control the mural scene, conveying a hopeful message this hand can also lead change. But whose hand is this? Based on her description, we can see this is an artist's hand, a worker's, or an entrepreneur's. Bead-like particles embedded all over the painting were employed as material for creation. The countless round colorful particles are organic objects that are divided in space and reproduced by mediators.

The moving lines continuously connected from the first floor to the second, from the exterior to the interior, give form to the organic relation of creative activities, carrying the artist's most important message: "Both workers and artists are all the subjects of labor." Park is able to reorganize the structure of quotidian space through her plan for social space. Park's representation of space completes an organically represented space with space extended from the inside to the outside and by recaptured subjects.

이  
승원

### 그레이트

벽 위에 우레탄페인트, PVC 파이프  
47.9 X 9.2 m  
2013



파  
주

### 갑우문화사

파주 문발공단  
(주) 갑우문화사  
설립연도  
1993  
면적  
1,388 평  
대표 업종  
제조, 기획, 인쇄업  
대표 생산물  
단행본 및 도서  
직원수  
1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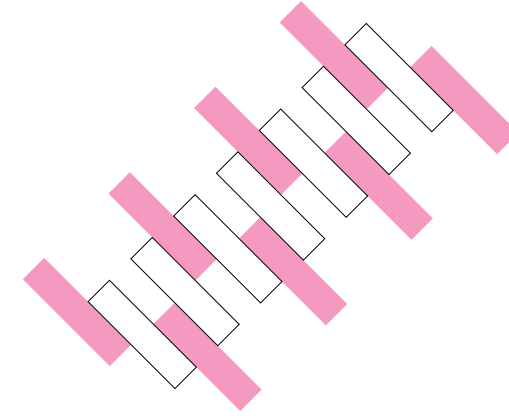
공공미술 디자이너 이승원은 도식적인 거대한 텍스트 중심의 벽화 작업 위에 인쇄 작업 중인 근로자를 형상화 한 조형물 오브제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공장 건물 전반에 씌여진 'GREAT'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인쇄술이 타인과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중요한 매체이며 기술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전하는 작가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다.

Lee  
Seung-won

### GREAT

Urethane Paint on Wall, PVC pipe  
47.9 X 9.2 m  
2013



Pa  
ju

### Design & Printing Group Gabwoo

Munbal Industrial Complex  
Design & Printing Group Gabwoo  
Year of establishment  
1993  
Area  
4,590m2  
Type of business  
Manufacturing, planning, printing  
Products  
Books, other printing materials  
Number of employees  
112

Public art designer Lee Seung-won creates and sets a three-dimensional image of a factory worker engaging in printing work after doing a gigantic, schematic text-centered mural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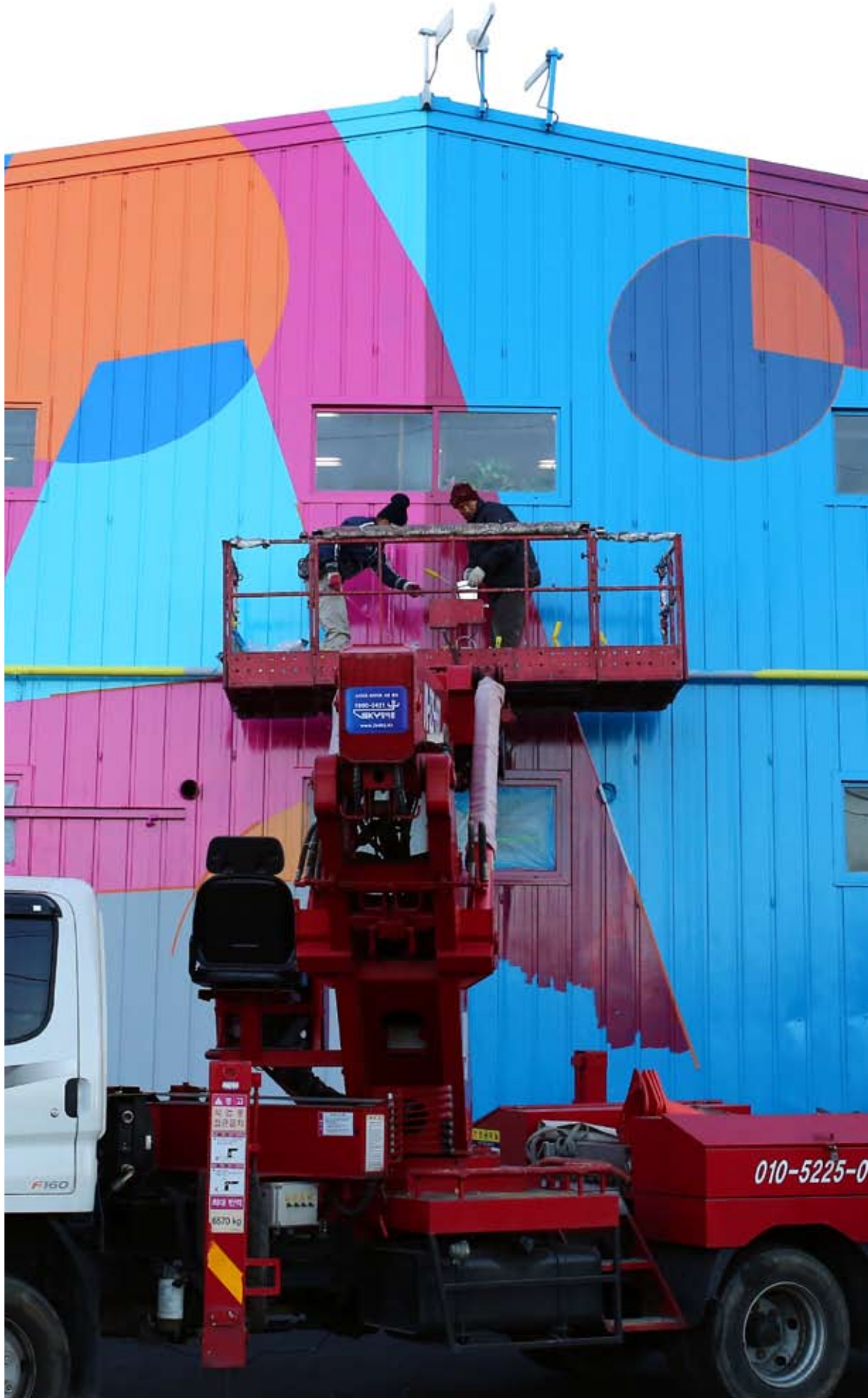
The import of "GREAT" on the façade of a factory building carries two meanings: printing is a significant medium and technology to share narratives with and expand to others, and a message of cheer sent to the scene of printing work.

















## 공단에 예술이 흘렀는가.

조두호 \_ 수원시미술전시관 학예팀장, 공공미술기획자

### 들어가며

서울과 파주, 임진각을 잇는 '자유로路'를 따라 얼마 안가서 우측에 있는 '파주출판도시'표지판이 보이는 쪽으로 빠지니 좁다랗고 굽어진 2차선 도로가 이어진다. 등성등성 건물들이 등장하더니 이내 눈길을 사로잡은 '떡대' 좋은 공장건물이 귀 옆을 스쳐지나갔다. 언뜻 봐서 꽤나 큰 규모의 인쇄공장인데 외관을 두르고 있는 푸른, 붉은 색상의 디자인은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손색이 없다. 주변의 다른 누런, 회색빛의 공장들과 비교돼서 그런지 꼭 홀로 잘난 체하는 알미운 엄마친구 아들처럼 유독 반짝거린다.

이 녀석의 정체는 '갑우문화사'라 불리는 출판·인쇄사의 공장 건물로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에서 지난 2011년부터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이 흐르는 공단>의 2013년도 버전이 되시겠다. 재단은 지난 프로젝트에서 안산시의 반월공단, 부천시의 부천테크노파크, 군포시 공단 등을 거쳐 올해에는 추가로 진행되는 부천테크노파크와 더불어 파주 문발공단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재단 측에 따르면 올해는 총 3곳의 프로젝트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부천에 1곳과 파주 문발공단에 2곳이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고 한다. 과거 프로젝트의 장소가 대부분 경기도의 남서부에 집중됐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경기북부를 진출을 이뤄낸 것이니 의미가 남다르다.

공공성을 지닌 장소적 입지조건과 프로젝트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인적 구성을 따져 선정된 '갑우문화사(이하 갑우)'는 학습지·상업광고물·제품 사용설명서 등을 주로 다루는 인쇄 전문업체이다. 갑우는 1993년에 설립됐고 최첨단의 인쇄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 수가 약 200여명이나 되는 대형 인쇄사이다. 기업주는 어느 매스컴과의 인터뷰에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은 문화가 좌우, 문화는 곧 인쇄"라 주장했는데, 인쇄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보다. 그런 이유에서 재단과 갑우의 파트너십이 결성됐으리라.

### GREAT

작품이 설치된 갑우문화사는 파주 문발공단 1단지의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가로 48미터에 높이가 9미터인 공장 정면 전체에 새겨진 작품은 원색에 가까운 강렬한 색조를 띠고 있어 주변 공장건물들의 다소 처져있는 분위기를 경쾌하게 만든다. 기하학적 도상들이 어지러운 듯 나름의 규칙을 갖고 배치되어 있어 접근해서 봤을 때 기하학적 추상미술이 떠오르기도 한다. 뜯어보면 직선과 곡선으로 서로 겹치면서 뿔어 글자의 형상을 하며 사이사이에 배치된 둥근 원이 글자의 가독을 방해하는 구조이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아무래도 작품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힘들기에 시각을 달리하며 시야각을 좌우로 비틀고 거리를 두고 떨어지니 이내 작가가 의도한 도상의 정체가 드러났다. 좌에서 우로 읽어보니 "GREAT",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면서 명확했다. 작가는 공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한마디 응원을 하고 싶었다고 한다. "짱이에요"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다.

작가는 글자와 배경을 한색과 난색으로 충돌시키고 겹쳐지는 면을 번이시켜 새로운 색감을 표현했다. 공장건물이 지니는 특성을 활용해 보는 방향에 따라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옵티컬아트(optical art)의 방식도 차용했는데 두 개의 대칭구조와 상단의 꼭짓점의 활용이 주요했다. 작품의 볼거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가까이 봤을 때 글자의 가독을 방해했던 요소인 둥근 원은 단순히 디자인 구성의 끼워 넣기가 아닌 인쇄의 시작인 '점'을 의미한다. 모든 인쇄는 점에서 시작한다는 원리이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배경이 GREAT라는 글자의 배치라면 우측면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노란색 선이 눈에 들어온다. 화면 전체를 상하로 등분하는 가로의 획이 그어졌고 그 옆으로 사람을 도식화한 노란파이프가 어떠한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입체적인 형상을 평면적으로 표현하려다보니, 그것도 파이프를 구부리고 접고 붙이다보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이런 구상회화가 아니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자.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 도상은 인쇄과정 중 가장 세밀하고 민감한 작업의 한 장면이란다. 일종의 인쇄품질 감식작업인데, 인쇄기계를 통해 나온 인쇄물이 제분되기 전에 의도대로 색상이 나왔는지를 검수하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준비해서 디자인한 출판물이 마지막에 색상이 잘못될 경우 얼마나 아찔하던가. 인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어 봤을 게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말풍선에 새겨진 "YES"에 일이 잘되고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가 보인다. 이런 서비스다.

작업은 전체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발생시킨다. 여타의 추상미술이나 회화가 갖는 복잡한 은유 따위는 날려버리고 작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려는 듯 보인다. 이정도 되면 참여 작가의 정체가 궁금 할게다. 참여 작가 이승원은 순수미술가가 아닌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그래픽디자이너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한 장의 그림 안에 주체 축이 하고자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나아가 시각에 매료된 이들을 세뇌시키는 것이 그래픽디자이너의 임무다. 과해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는 더욱이 안 될 것이다. 이제 이승원의 "GREAT"가 다른 순수미술가들의 모호성을 뚫고나오는 명료함을 지닌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다.

공공의 영역에서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며 무저항적으로 접견하게 될 공공미술에서 메시지의 단순화, 의미전달의 명확함은 크나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래픽 디자이너 이승원의 이번 작품에는 어느 정도 합격점을 주고 싶다.

## 그래픽 디자이너

이승원은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그의 디자인은 의식을 시각화해 평면에 재배치하는 작업이다. 한 장의 화면에 이미지와 텍스트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짧지만 강한 메타포(metaphor)를 담는다. 말로 할 때는 주저리 늘어놔야 했던 긴 문장들이 그의 손을 거치면 수 마디의 지겨운 잔소리보다 친절하고 간결하게 전달된다. 이승원의 디자인은 특히 더 그러하다. 맥락의 시각화를 통한 변이과정을 거쳐자 이미지가 꿈틀거리더니 망막을 거쳐 뇌 속으로 박혀버린다. 소통이란 것이 본래 보고 듣고 이해하고 되물어보고 받아들이거나 부정하거나 한 후에 “아...”하는 것 아니던가. 그런데 이승원식 디자인의 소통방식은 그보다 더 신속히 중간과정을 간단히 넘어선다.

그는 단순히 편집디자이너라 불리기에 다양한 영역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의 정체성을 담는 BI(Brand Identity)나 CI(Corporate Identity) 작업부터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기획전시의 포스터, 리플릿, 도록 등 편집디자인, 상품의 포장을 디자인하는 패키지디자인, 공간장소에 입체적으로 설치되는 공공디자인 등 상업과 비영리계열을 넘나드는 다목적·다기능 디자이너라 불리는 것이 적합하다. 그런데 이번 <예술이 흐르는 공간>에서 그는 디자이너의 역할을 넘어 순수미술의 영역으로 알았던 공공미술의 그것으로 자신을 흘려보냈다.

흔히 공공미술하면 벽화나 거대한 조각품 따위를 상상할게다. 그리고 당연히 순수미술을 전공한 화가나 조각가의 작품이 공공장소에 그려지거나 설치되겠지 라고 말이다. 굳이 순수미술가(fine artist)와 디자이너(designer)의 구분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 누가 명쾌하게 예술art과 디자인(design)의 경계를 구별해 낼 수 있는가. 케케묵은 옛날이야기처럼 아직도 도자기 장인 같은 공예가들과 디자이너가 같은 말이라고 철썩 같이 믿는 분이 계신가.

디자이너의 공공미술, 새롭게 들리는가. 아니 전혀 새로울 것 없다. 오래된 사원이나 교회내부의 성상화가 순수미술 화가의 영역이었다면 도시의 벽면을 매우는 공공미술은 본래 그래픽디자인에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슈퍼 그래픽(super graphic)’과 ‘빅아트(big art)’라 불리는 거대한 크기의 벽화는 1960년대 서구의 도시에서 등장했다. 삭막한 도시의 미관을 꾸미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그래픽디자이너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이승원의 ‘외도外道’는 정당하다. 오히려 순수미술 작가들의 그것을 위협하는 커다란 무기를 지녔다. 작가주의 예술에 길들여진 예술가들은 자신의 창작 주제를 철저히 자신에게 두곤 한다. 주제를 정하고 표현하는데 있어 누구보다 자유로우며, 그러한 가운데 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창의력이 발산되리라. 하지만 공공미술을 대하는 자유로운 작가주의는 종종 어려움을 겪곤 한다. ‘공공’이란 두 음절이 항상 말썽이다.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성이 확보되려면 불특정 다수 공공과의 합의도출이 불가항력적으로 따라온다. 나름의 자체검열이 필요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기획력과 설득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승원의 강력한 무기가 돋보인다. 과거부터 그의 창작에는 항상 의뢰인이 존재해왔다. 고객과의 협의, 소통, 설득을 밑반찬으로 품 나는 결과물 카운터택(counterattack)을 날리는 것이 바로 이승원이다.

## 공단에 예술이 흘렀는가.

예술과 일상의 분리를 주장했던 모더니즘의 가치가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현실에 대한 초월적 입장을 취했던 모더니즘의 미학적 담론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던 ‘아우라(Aura)’를 죽기 전에 볼 수(느낄 수)는 있을까. 누구는 보인다고는 하던데, 이제 예술은 현실과 조우하고, 삶과 부대끼며 시대를 서핑(surfing)한다. 지금의 예술은 몸통을 이리저리 비틀고 얼었다가 녹아내린다. 너른 광장을 나가 기지개를 피더니, 재래시장을 파고들었고, 재개발되는 낙후된 마을 언저리로 들어갔다. 철도가 멈춰버린 폐역사로 가더니 곡식창고, 오래된 목욕탕, 용도 폐기된 공장 등으로 파고들었다. 워라 규정하고 정의내릴 겨를도 없는 사이에 예술의 한 장르로서 자리 잡은게 바로 이 공공미술이다.

그런데 공공미술이란 것 시작할 때는 의욕 충만하던 것이 끝나면 무언가 찝찝하다. 모든 일이 다 마친가지겠지만 결국 용두사미(龍頭蛇尾)하고서는 그래도 안한 것 보다는 낫다면서 자위하는 것 아니던가. 밀레니엄을 넘어 예술이 지원정책과 만나 사회복지의 다른 이름으로 명명되더니 마을만들기, 예술마을가꾸기, 마을르네상스, 도시갤러리... 등등 약간 이름만 다를 뿐 다 거기서 거기인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성행했다. 이제는 과도기를 지나 자문할 시점에 진입한 것이다. 공공미술이 실행된다고 창의력이 증진되고, 범죄율이 낮아지고,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나서 여기저기서 놀러 와서 우리 동네 살림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 말아 달라. 공공미술을 절대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예술이 흐르는 공간>프로젝트가 진행 됐다고 해서 마을 경제가 살아나고 낙후된 우범지역이 하루아침에 활기차고 생기롭게 피어오를 것이라 기대하지 말자. 공공미술은 단순히 미술품을 관람하고서 감탄사 내뱉고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할 대상이며 우리의 주변을 이루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일 뿐이다. 예술과 일상이 가까워지고 보편적인 일상에 예술이 녹아들 때 우리의 문화가 유려하게 흐를게다. 그러니 공단에 흐르는 예술에 발을 한번 담가보자. 시원하게 말이다.

## GREAT

Cho Doo-ho

The Gabwoo building on which the work is presented is located at the second lot of the Munbal Industrial Complex I, Paju. This work, set on the entire factory building façade, 39 meters long and 7 meters high, in intense hues verging on primary colors seems conducive to converting a rather depressed atmosphere of nearby factory buildings into a delightful, cheerful ones. As geometrical figures are arranged in their own rule, although appearing disorderly, this work looks like abstract art in near view. Under closer scrutiny, we can realize this work is formed in a structure that straight lines and curves form characters, overlapping with one another and spreading, and the round shapes arranged among the characters disturb the legibility of the characters. This work's whole image cannot be grasped at near distance, but if viewing this from afar, we can recognize the image the artist tried to present. This is a very succinct, apparent message, "Great" if reading from left to right. It is said the artist wanted to offer words of consolation to the laborers arduously working at the printing factory, saying "You are great," "You are the best," and "Thank you."

In this work cold and warm colors shaping the characters and the background collide, and new color senses are represented through a modification of overlapping planes. A way of optical art arousing optical illusion, depending on visual angles, is also adopted. The crucial elements of this work are two contrasting structures and apexes applied to the top. Another spectacle in this work includes the following: the round shapes disturbing readability in a close-up view are not merely inserted for the composition of this work's design but refers to 'dots,' a departure point of printing, reflecting the fact that all printing starts from d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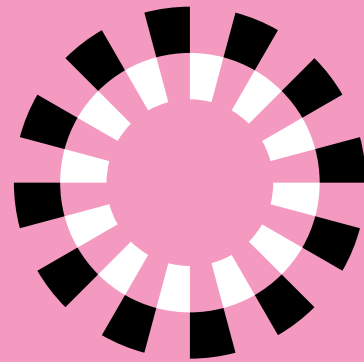
The whole background is formed through an arrangement of the characters "GREAT" while the yellow lines express a shape of a person on the right. The horizontal line separating top from the bottom is drawn, and yellow pipes depicting a man account for some action. This image shaped by the yellow pipes appears inevitably unnatural as it is formed by bending, folding, and gluing. It is understandable as this image is not intended to express any figurative factor. What's important is the message the artist intends to convey. The artist explains this image is a depiction of the most elaborate, sensitive printing process: this image is a representation of an inspection of printing materials to check the colors of the materials are printed properly before binding them. If one is experienced in printing processes, he or she might undergo some despair when a printed material produced after minute, arduous, and careful designs turns out to have wrong colors. "YES" drawn in a speech bubble at the back implies some message of affirmation.

This work brings forth some bright, positive energy as a whole. Giving up intricate metaphors abstract painting usually employs, this work seems to convey accurate meaning in the scope the artist can control. At this stage we may wonder about the artist's identity. Artist Lee Seungwon is not an artist but a graphic designer. As they say, he is a designer who rides high nowadays. He produces a wide diversity of graphic designs, be it pure art or applied art. A graphic designer has the mission of conveying meaning a host wants to express with a picture, and has those lured by visual images brainwashed. Both excessiveness and shortage is not allowed for him. We can now realize why Lee's GREAT has clarity overcoming any artist's ambiguity. In public art unspecified individuals may meet without repulsion or resistance in a public arena, simple messages and clear meaning may be great weapons. That is why we can give a passing grade to this work.



하  
태임

### 색채 교향곡



벽 위에 페인트  
24.2x17.4x11m  
2013

파  
주

### 삼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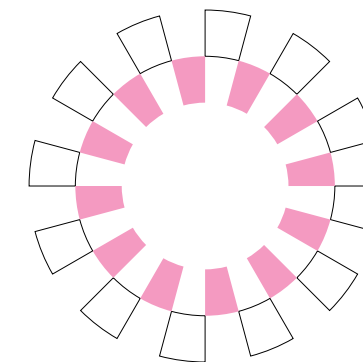
**문발공단**  
삼광사  
**설립연도**  
1980년  
**면적**  
600 평  
**업종**  
옵셋 인쇄  
**생산품**  
책자, 월간지, 포스터, 카탈로그, 기타  
**직원수**  
16명

삼광사(三光社)의 삼광은 세 개의 빛이며, 그 빛은 찬란한 색을 의미하기도 하다. 작가 하태임은 옥빛 바탕의 건물 사면(四面)에 작가 특유의 색띠(컬러밴드)를 넣어 벽면에 리듬감과 생명감을 부여한다.

유연한 곡선의 색띠들은 넘실대는 파도 속 유영하는 돌고래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춤을 추듯 뿔어 간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색띠(컬러밴드)는 사랑과 희망,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리움과 같은 사람들의 감성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색채 환상곡> 작품을 통하여 바쁜 삶의 현장에서 잠시 잊어 버렸던 자신의 감성과 색채를 되찾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Ha  
Tae-im

### Color fantasy



Paint on wall  
24.2x17.4x11m  
2013

Pa  
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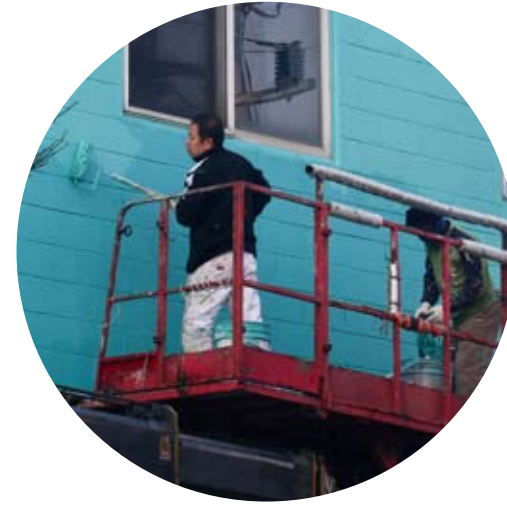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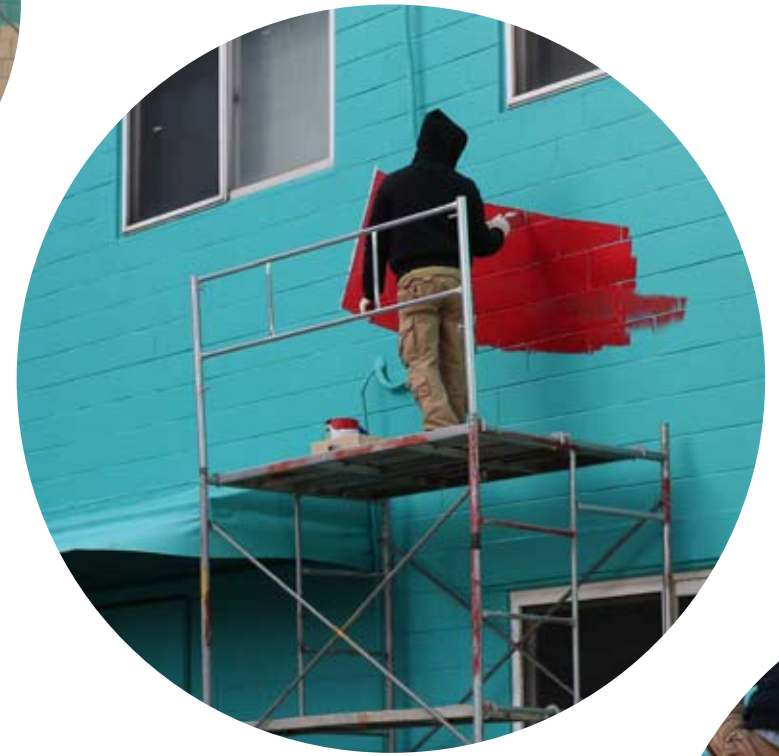
### Samkwang Printing Company

**Munbal Industrial Complex**  
Samkwang Printing Company  
**Year of establishment**  
1980  
**Area**  
1983.5m2  
**Type of business**  
Offset printing  
**Products**  
Books, posters, catalogs, etc.  
**Number of employees**  
16

"Samkwang" (三光) in Samkwang Printing Company (三光社) refers to three lights, and the lights mean splendid colors. Artist Ha Tae-im lends rhythm and vitality to a building by painting her intrinsic color bands on its four walls.

The color bands with flexible curves sprawl out into different directions like swimming dolphins in surging waves. Ha represents emotions and feelings such as love and hope, joy and sorrow, and longing through similar yet slightly different color bands, wishing that in-situ workers regain emotion and color they have forgotten for a while at the scene of their hectic life.











삼공사





삼광사

## 삶의 리듬을 새롭게 환기시키며

이슬비 \_ 월간미술 기자

최근 파주시 문발공단 초입에 위치한 도서 인쇄업체 삼광사가 화가 하태임의 벽화 작업을 통해 산뜻한 분위기를 내뿜는 하나의 작품으로 변모했다.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이 흐르는 공간' 사업 중 하나로 작가는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된 이 낡은 건물 외벽을 캔버스로 삼았다. 그동안 하태임은 회화와 조각, 미디어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었지만, 공공 미술의 성격을 띤 대형 벽화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질적인 벽화 작업은 예술가로 구성된 시공팀이 맡았다.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작가는 다양한 제약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했고 그 결과 이번 작업은 작가 하태임이 추구하는 방향이 가장 압축적으로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하태임의 회화는 기본적으로 캔버스를 바닥에 두고 아크릴 물감을 투명하게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바탕색을 칠하고 그 위에 다양한 컬러밴드를 그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작가는 자신의 몸을 축으로 해서 팔을 쭉 뻗어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린다. 컬러밴드는 마치 일필휘지로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감에 물을 뭍게 타서 5~10번씩 몇 번이고 덧칠해서 완성한 것이다. 물감을 칠하고 마르기까지 기다린 후 다시 칠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그리기의 행위도 강조된다. 이로써 컬러밴드들이 투명하게 중첩된 회화는 그리는 행위가 축적된 하나의 시공간으로 무수한 깊이감을 가진다. 하지만 이번 벽화 작업에서 투명성은 포기될 수밖에 없었다. 수성페인트가 흘러내리면서 오히려 외관만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블록을 쌓아 만든 건물의 특성상 요철이 심해 하태임 특유의 획의 느낌도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벽화 작업은 작가가 먼저 비율에 맞게 제작한 회화를 컴퓨터 도안 작업을 거쳐 작품의 이미지를 디자인적 요소로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붓의 흔적을 쌓아 올리는 기존 특성이 배제된 이번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규모와 강렬한 색이 두 눈을 사로잡는다. 에메랄드색 바탕 위에 분홍, 노랑, 빨강, 파랑, 초록 등 20여 가지 색으로 구성된 컬러밴드들은 무한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기존 회화에서 컬러밴드의 휘어진 정도가 다소 완만하거나 직선에 가까웠다면 이번 작업에는 곡선이 더 많이 휘어져 그 움직임이 더욱 리드미컬해 보인다. 벽화 작업 특성상 가시거리 확보가 어려워 곡선의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쉽지 않지만, 작가는 가능한 자연스러운 곡선처럼 보이도록 최대한 신경을 쏟았다. 또한, 각 컬러밴드의 시작하는 면과 끝나는 면의 길이가 같도록 굽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 결과 컬러밴드의 탄력적인 움직임은 마치 꿈틀거리며 요동치는 것 같은 환영을 선사한다. 하지만 결코 특정한 재현의 대상으로 굳어져 작품의 의미를 한정하지는 않는다.

하태임의 벽화 작업은 도시의 삶의 공간 안에서의 연대감 확인을 위한 내러티브 위주의 작업이 아니다. 얼핏 보면 장소의 맥락과 상관없이 미술관과 갤러리 안의 작품을 단순히 확대 재생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작업은 건물의 장소성을 은폐하는 가림막이거나 거대한 모뉴먼트가 아니다. 직육면체가 아닌 2층과 3층이 결합한 다면체인 건물 구조와 40여 개가 되는 창문과 문, 그리고 '삼광사'라는 거대한 간판은 하태임의 작업에서 명백한 장애 요소이면서 동시에 장소의 고유성을 상기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물론 이번 작업은 공단이라는 커뮤니티 자체나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커뮤니티에서 한 발짝 떨어져 공단이라는 장소성과 근로들이 처한 현실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공단 근로자들은 일상에서 제대로 문화 활동을 즐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술은 요원할 뿐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하는 삼광사는 근무인원 20인 이하의 영세업체이지만 대표자는 근로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벽화를 제작해달라는 뜻을 전달했고 재단 측은 작가 하태임을 책임자로 선정했다.

사실 한국 공공미술의 흐름에서 벽화 작업은 전통적인 혹은 낡은 방식으로 인지되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 중심으로 공익을 대변하려는 움직임은 '커뮤니티 아트'로 통칭한다면, 이러한 경향이 최근 공공미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술가들이 일방통행식의 생산이 아니라, 쌍방향의 소통 나아가 모두가 창작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자는 커뮤니티 아트의 취지는 그 자체로 의미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미술이 최신 경향이자 가장 진화된 방식으로 이해되고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관 주도의 공공 미술 지원금 재정이 공동체와 함께 작업하는 작가 혹은 사업에 편중되는 현상은 제도과 자본, 그리고 유행이 결합하여 공공미술의 흐름을 획일화시키고 기존 의미를 희석할 우려가 있다. 현재 공공미술의 개념은 끊임없이 유행적 의미로 쓰인다. 더 이상 공공미술에서 청동조각이나, 벽화나, 커뮤니티 아트나 이런 식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열린 시각에서 특정 장소, 지역 커뮤니티, 참여 작가,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조건과 맥락에 따라 예술의 다양한 시도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최근 공공미술에서는 관객의 참여만큼이나 작가의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예술이 흐르는 공간' 사업은 커뮤니티 아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주도해온 경기문화재단이 2011년부터 제안해온 '작가주의 공공미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하태임은 "작가의 특성을 인정해주고 디자인을 실현해 준다는 점"에서 '작가주의 공공미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작가들이 그들이 접한 커뮤니티와 제대로 된 접점을 찾지 못해 커뮤니티의 특성도 살리지 못하고 작가의 고유성도 잃어 버려 작업의 질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태임은 벽화 작업을 통해 기존 작업의 특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추구한다. 하태임의 추상 회화는 근본적으로 은유적이고, 암시적이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다. 시각언어인 미술 자체의 기능에 충실한 작업으로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다. 작가는 무엇보다 색채를 통해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색채는 감상자의 이해보다 감각 즉, 감상자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몸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한 것이다. 관람자는 색에 따라 각자 자신의 기억을 펼쳐게 된다. 예를 들어 노란색을 보면서 바나나 혹은 해바라기가 생각나든지, 날씨 좋은 날 낮잠을 자던 중 느꼈던 햇빛을 떠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색채는 사람마다 특별한 의미로 작용하는데, 작가는 특히 붉은색, 노란색을 가리켜 “나에게 힘을 주는 ‘비타민’ 같은 색”이라고 말한다.

하태임의 작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환경미화에 그치지 않는다. 단순한 반복이면서도 색채, 굵기와 길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컬러밴드 이미지는 기존의 공간을 환기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한다. 삼광사가 위치한 파주 문발공단 일대는 황량한 벌판에 특색 없이 늘어선 무채색 건물들로 활기가 부족하다. 앙리 르페브르는 **장소와 시간, 에너지의 상호작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리듬'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때 '리듬'이란 동일한 것의 반복과 차이가 만들어낸 시간적인 개념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생산 사이클은 수면, 식욕, 갈증, 배설 욕구 등 인간의 생체적 리듬까지 강요할 정도로 견고하다.<sup>1)</sup> 사실 공단이야말로 그 태생부터 철저한 시장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장소다. 기계적인 리듬의 반복은 인간의 삶을 권태롭고 피폐하게 만들지만 일상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충돌이 빚어낸 리듬이야말로 삶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하태임의 벽화작업은 그 자체로 무미건조한 일상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하태임은 자신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반복과 차이는 바로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것은 스스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삶의 변혁이며, 정치적인 실천이다. 그녀의 추상은 그 자체로 머무르지 않는다. 작품을 보는 사람들 각자의 기억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만든다.

하태임은 색채와 곡선이라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다양한 반복과 차이를 생산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화의 역동적인 효과를 실험해왔다. 그리고 그녀는 구상이 대세인 분위기 속에서도 곳곳이 추상 작업을 지속해왔다. 추상에 관한 그녀의 열정은 아마도 추상은 비정치적이고, 구상은 정치적이란 한국 화단이 고수해온 오랜 편견에 대한 정면승부일 것이다. 하태임의 작업은 다양한 맥락과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한없이 매혹적인 리듬 그 자체를 지향한다.

1) 앙리 르페브르,《리듬 분석》, 갈무리, 2013

## A New Reminder of Quotidian Rhythms

Lee Seul-bi

The building of Samkwangsa, a printing firm located at the entrance of the Munbal Industrial Complex in Paju has recently turned into a work of art by artist Ha Tae Im. Ha's mural, rendered on the exterior wall of a 20 year old building, is an extension of her previous paintings. The artist practiced this work as part of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a public art project hosted by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Ha has so far worked in a wide range of media such as painting and sculpture, but she is most involved in large scale mural work. A working-level team actually took up the painting this mural work. What was required for the artist to bring her work to fruition was to stay focused on her goal amid many restrictions. As a result, this mural has become a key work highlighting Ha's ingenuity.

Ha's paintings seem to be created with one stroke of a brush, but is actually completed by applying paints diluted in water 5-10 times. The act of painting is also in the process of applying paint and waiting for it to dry. The transparent overlaps of color bring forth a depth in space-time with accumulated actions. However, the artist had to give up this transparency in this mural work because its outward appearance may look untidy if the water-based paint drips down. For this mural, the artist first produced an image in the proper proportion and then designed the image on a computer.

Excluding the elemental feature of her work which is dependent on the layers of brush marks, enormous bands of intense color catch our eyes. The elastic movements of the bands of approximately 20 colors including pink, yellow, red, blue, and green on an emerald ground give birth to an illusion that they are wriggling or rocking. Ha's work is metaphoric and implicative. She believes true communic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color. The colors appeal to the viewer's senses, that is, their body's immediate visceral reaction. Each color works as a reminder of a memory. The colors have a special meaning for each person. The artist feels that red and yellow are "vitamin-like colors giving me strength".

Her color bands of different thickness and length remind viewers of pre-existing space-time, generating a new energy. According to Henry Lefebvre, rhythms exist anywhere where there are interactions between place, time, and energy. The cycles of capitalist production dominating the social environment and labor today have had a grave effect on our biorhythms pertaining to sleep, appetite, thirst, and excretion desire. Mechanical repetition makes human life dull and devastated, but rhythms engendered from a clash of time crossing over the everyday offer an insight into life. Ha mentions that the recurrence of sameness and difference in her work means "life". Ha has experienced with painting's dynamic effect, generating sameness and difference through diverse repetitions even with the restrictive conditions of color and curve. Ha's abstraction is not fixed per se. It concretely reminds viewers of their own rhythms. Her work pursues seductive rhythms enabling viewers to reflect on a wide variety of contexts and relations.

## 작가약력

<b>박은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1SOAF-갤러리 룩스, 코엑스, 서울</li> <li>'Homage to Morandi'전, 브레인 팩토리, 서울</li> <li>'Through the window', 스페이스 함, 서울</li></ul>
<b>학력사항</b>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2010	'Real Antenna', 스페이스 함, 서울
이태리 로마 국립 아카데미 회화와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소나기'전, 갤러리 키미, 서울</li> <li>'2010 Heavenly Dream' 하늘꿈 학교 후원전, 신한목자교회 글로리홀, 경기도</li> <li>'루트'전-가든파이프, 스프링 플라자, 서울</li> <li>'Art Edition'전, 금산갤러리-BEXCO, 부산</li> <li>'공간의 미학', 아람누리-어울림 미술관, 고양문화재단, 경기도</li> <li>Asia Top Gallery Hotel Art Fair SEOUL 2010, 금산갤러리-신라호텔, 서울</li> <li>'한여름 밤의 미술관'-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이천 시립발전미술관, 이천, 경기도</li> <li>'거꾸로 달리는 시계, 이천 시립발전미술관, 이천, 경기도</li> <li>'a story of coffee', 갤러리 서치, 서울</li> <li>'light &amp; dark', 스페이스 함, 서울</li></ul>
<b>개인전</b>		
2011 박은선 전-'유기적 공간' KAIST카이스트 갤러리 -이현서울갤러리기획, 서울		
2010 'Castle_상', 갤러리 룩스, 서울		
2009 'Castle_상', 조선일보사 갤러리 One, 서울		
2006 박은선 전-Window showing exhibition II -아시아 출판문화 정보센터, 파주, 경기도		
2005 '아트하우스-풍경, 삼성 래미안 문화관, 원도우갤러리, 서울		
2003 Two Doors, 아트파크, 서울		
2002 Window gallery, 갤러리 현대, 서울		
2001 KCAF 한국 현대 미술제-21C,세계로 가는 한국미술-박영덕 화랑, 예술의 전당, 서울		
2000 가나아트 갤러리 기획, 인사아트센터,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Cite' Internationale Des Arts갤러리, 파리, 프랑스</li> <li>Passages-현대예술 센터, 트로아, 프랑스 (프랑스 문화성, 현대 예술센터 초청)</li> <li>아트사이드, 서울</li></ul>	2009	'The story of two cities", 한국-영국 교류전, 서울문화재단, 갤러리 반디,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얼굴, Face to Face', 부산문화회관, 부산</li> <li>2009 KIAF-갤러리 아트파크 / 갤러리 반디, 코엑스, 서울</li> <li>'후지와라 요지로와 함께하는 착한사람들 전', 금산갤러리, 헤이리</li> <li>a part of me, 스페이스 함, 서울</li> <li>'Beat in Two Cities', 영은미술관, 광주, 경기도</li> <li>'2009 Green Cake Art Fair', 대안공간 팀 프리뷰, 서울</li> <li>유아트스페이스 개관 6주년 기념전, 유아트스페이스, 서울</li> <li>'반영' Art gallery-시청광장 지하도, 서울시설공단 주최, 서울</li> <li>'A small fortune'전, 갤러리아트파크, 서울</li> <li>'현실과 환타지의 경계전, 강남구청 북도안예 미술관-금산갤러리 주관, 서울</li> <li>My private collection, 가나아트센터 미루 갤러리, 서울</li></ul>
1998 가나아트 스페이스, 서울		
1997 Cite' Internationale Des Arts갤러리, 파리, 프랑스		
1992 팔라쵸 바르베리니-(Pallazzo Barberini), 로마, 이태리		
<b>단체전</b>		
2013 '뿔연속의 우연', 사면공간四面空間 미술관, 북경,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KIAF-한국국제아트페어전, 갤러리 아트파크-코엑스/인도양홀, 서울</li> <li>2013DIAS-대전국제아트쇼, 대전무역전시관, 대전</li> <li>'Carbon Footprint 2013', 인사아트센터, 서울</li> <li>'Fashion Retail Fair 2013', SETEC, 서울</li> <li>'미술관 서머바캉스, 인천신세계 갤러리, 인천</li> <li>'미술관에 놀라 왔어요', 광주신세계갤러리, 광주</li> <li>'Make Shop Top10展,메이크샵아트스페이스, 파주</li> <li>"BETWEEN STAIRS III-PERSONA", 스페이스 함, 서울</li> <li>'Art Link Project', 인사아트센터, 서울/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평창</li></ul>	2008	'the bridge'-가나아트 25주년 기념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08 제3회 블루밍아트페어, 갤러리H, 서울</li> <li>2008 KIAF-갤러리 아트파크 / 선화랑, 코엑스, 서울</li> <li>'창작해부학'전-경기도 미술관, 경기도</li> <li>'오늘의 한국미술 - 미술의 표정', 한가람 미술관, 예술의 전당, 서울</li> <li>'페미니즘 2070'-한국미술관, 용인, 경기도</li> <li>'5 senses'-금산갤러리, 헤이리, 경기도</li> <li>'뽀뽀한 아이들'-N갤러리, 분당, 경기도</li> <li>&lt;사랑나눔 경매&gt;-테디 베어, 한국백화병소아암재단과 CJ도너스캠프에 기부, K옥션, 서울</li></ul>
2012 'Between Stairs II', 한국기술센터,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Toka Art Factory Open Studio', toka art factory, 서울</li> <li>'The Power of Art_ People', 한중 수교20주년전, 두만강 문화융합 갤러리, 중국 도문시</li> <li>2012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영상자료원, 서울</li> <li>'여행가는 길', 모란미술관, 경기도</li> <li>'Between Stairs', 한국기술센터, 서울</li> <li>'갈호전', 흥대 현대미술관, 서울</li> <li>2012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li> <li>쉴컷 윈더랜드, 예술의 전당</li></ul>	2007	'도시가 작품이다'-도시 갤러리2008, 서울시 공공 프로젝트,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구 아트페어 2007-갤러리아트파크, 대구 엑스코, 대구</li> <li>화랑미술제2007-갤러리아트파크,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li> <li>'거울보기' 전, 아트파크, 서울</li> <li>한중 국제교류전-'조용한 울림'전, 이음 갤러리, 따산즈-북경, 중국</li></ul>
2011 'Pointfeed'전 갤러리 보다,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작은 것의 미학, 아트유저, 서울</li> <li>'Art Castle', 가든파이프, 스프링 플라자, 서울</li></ul>		

- KIAF-한국국제아트페어전, 갤러리 아트파크-코엑스/인도양홀, 서울
- 쟁잇는 전시, 미술공간 현, 서울
- NIAF-남승 국제 아트페어, 성남아트센터, 분당

- 2006 SIAC '열린 미술제'-박여숙 화랑, 코엑스 컨벤션홀, 서울
- 'Space project', 시안미술관, 영천, 경북
  - 'Sentimental Space'공간을 느끼다-가나아트갤러리 주최, 한국디자인센터, 분당
  - 화랑 미술제-선화랑,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 함 갤러리 1주년 기념전, 함 갤러리, 서울
  - 'Speed pain', 함 갤러리, 서울
  - 국제안전여성비엔날레-솔결전,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인천
  - Who's who?, 자선염서전, 현대백화점 하늘공원, 서울
  - 'Come in' -독일 현대예술과 인테리어 디자인전, 코리아 디자인센터, 분당, 경기도
  - 2기 가나아틀리에 작가전 '졸업', 가나아트센터, 서울

- 2005 The magic of Art-갤러리 아트파크 기획, 갤러리 M, 대구
- '문화가 있는 놀이터'전, 청계천 문화관 기획전시실, 서울
  - Dive into life, 신세계 갤러리, 인천
  - 2기 가나아틀리에 오픈 스튜디오, 가나아틀리에, 서울
  - 퀵른 아트 페어, 퀵른, 독일
  - PAAF 2005-제 1회 포천 아시아 미술제, 포천 반월 아트 홀, 포천
  - 청담 미술제-유 아트 스페이스, 서울
  - The magic of Art, 갤러리 아트파크 기획,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 Media Plus 미디어플러스 2인전, 시안 미술관, 영천시, 경상북도
  - 경기도 방문의 해 기념전-"3070", 한국미술관, 용인, 경기도
  - KIAF-한국국제아트페어전, 선 아트센터-코엑스/인도양홀, 서울
  - 충무갤러리 개관 기념전-'오(五)감(感)도(鳥)'전, 충무갤러리, 서울
  - 제20회 2005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Nine One Man Show-2기 가나아틀리에 작가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 2004-05 '구성 & 중심'-예술의 전당 특별기획전 II,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 2004 indoor&Outdoor 공간유회, 가나아트 센터, 서울
- Image Utopia, 한진 프라자 갤러리, 서울
  - 가상의 딸, 여성 플라자, 서울
  - 서늘한 미인, 노암 갤러리, 서울
  - Light Collection, 갤러리 현대 플러스, 서울
  - <작은 미술관-이상하고 아름다운>, 국립현대미술관, 인천 전철 시청역, 인천
  - 가구 재해석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 가나아틀리에 오픈스튜디오, 가나아틀리에, 서울
  - 그리스 화필 기행전-서양문명의 첫줄을 찾아서, 사비나 미술관, 서울
  - KIAF 한국국제아트페어전, 선 아트센터-코엑스/인도양홀, 서울
  - Seoul Living Design Fair, 코엑스, 서울

- 관조의 기쁨, 선 아트센터, 서울
- 이야기하는 벽, 문예진흥원 마로니에 미술관, 서울
- 이중구조전, 갤러리 조, 서울
- 재미있는 반복전, 특별전-이중공간,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03 City Net Asia 2003,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 Mindscape, 갤러리 현대 플러스, 서울
  - Charity전-선물, 찜지 스페이스, 서울
  - 트릭전,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 미술과 놀이전, 한가람 미술관, 서울
  - 창동미술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서울
  - 삼애 스머플다전, 강남 성모병원, 서울
  - Prince & Princess전, 갤러리 현대, 서울

- 2002-03 多面展-아름다운 일상, 상상을 한다면, 모로 갤러리, 서울

- 2002 창동미술스튜디오 개관전, 창동미술스튜디오 갤러리, 서울
- 창동미술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창동미술스튜디오, 서울
  - 화랑미술제-갤러리 현대, 예술의 전당
  - 미스테리전, 사비나 미술관, 서울
  - 탈물질전, BirIa Academy of Art and Culture, 갤커타, 인도
  - 탈물질전, Nandan 갤러리, 산티니케탄, 인도
  - 작은 미술관-소풍 프로젝트,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과천

- 2001 2001환경미술제-미래의 도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도시의 정면, 갤러리 SADI, 서울
  - 탈물질전,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 미술의 회복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 서호 미술관 개관 기념전, 서호 미술관, 남양주시

- 2000 2000희망-세화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 1999 판화미술제, 예술의 전당, 서울

- 1996 레드랑 떼느전, 문화일보 갤러리, 서울
- 정서표출전, 현대아트 갤러리, 서울
  - 상함과 상징전, 단성 갤러리, 서울

- 1995 95표현의 다양화전, 조형 갤러리, 서울
- 1994 타카코 사이트 퍼포먼스 참가, 무디마 미술관, 밀라노
- 색시공전, 공평아트센터, 서울
  - 에벤뚜알리스트 예술사진전, 아르트로코르, 로마

- 1993 3인전, 일 파드리 뽀르띠코, 로마
- 평화를 사랑하는 111인의작가전, 박영덕 화랑, 서울

- 1991 아르떼베르 1000, 쉘라 우노, 로마

<b>이승원</b>		<b>하태임</b>
<b>학력사항</b>		<b>학력사항</b>
뉴욕 스킨 오브 비주얼 아트 그래픽디자인과 졸업		201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박사 졸업 <p>&lt;학위는문명, 컬러밴드를 이용한 비선형 한국패턴 구성의 회화적 역동효과&gt;</p> 1998 파리 국립 미술학교 졸업, <p>파리보자르(D.N.S.A.P), 프랑스</p> 1994 디종 국립 미술학교 졸업, 프랑스
<b>작업</b>		<b>개인전</b>
2013 문화의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신살 영상섭, 경성에 한생하다, 영상섭 문학제</li> <li>신중국미술전, 아르고미술관</li> <li>문전성시 연간보고서/컨설팅북/프로그램집</li></ul>		2013 하태임 개인전, 가나 컨템퍼러리,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하태임 개인전, 일호갤러리, 서울</li></ul>
2012 플레이그라운드, 아르고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영화 퍼펙트게임 아트북 아트북</li> <li>참레지던시 CI, 호치민 베트남</li></ul>		2012 장흥아트파크기획 개인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1 양평군립미술관 MI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시장과 문화 컨설팅단 포럼</li> <li>청작국악축제, 안산시립국악단</li> <li>type: wall, 소마미술관</li> <li>bring into the world, 난지창작센터</li></ul>		2009 갤러리 아트사이드 초대전, 북경, 중국
2010 its story, IBM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에이앤엠 CI, 건축사무소</li></ul>		2008 갤러리 프렌치메이드 초대전, 뮌헨, 독일
2009 하나은행 SI 그래픽, 하나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디자인투브 그래픽, 서울디자인재단</li> <li>특별판, 동물농장, 민음사</li> <li>리마스터피스2, znp creative</li></ul>		2007 파리 씨떼 데 자르, 파리,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사아트센터 박사청구전, 서울</li></ul>
<b>전시</b>		2006 갤러리 아트사이드 초대전, 서울
2013 문화의 달, 서울역문화284,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신살 영상섭, 경성에 한생하다, 서울도서관, 서울</li> <li>cross over, 신진작가전 삼원페이퍼갤러리, 서울</li></ul>		2005 갤러리 아지오 초대전, 양평
2012 포스터 이슈 모아 플리즈, 테이크아웃드로잉, 서울		2004 갤러리 아트사이드 초대전,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 기획전, 서울</li> <li>파리 씨떼 데 자르, 파리, 프랑스</li></ul>
2008 셀렉티드 쇼, 아트 디렉터스 클럽, 뉴욕		2000 조선화랑(새천년의 비전 초대전), 서울
2006 블랙스퀘어프로젝트, 비주얼아트 갤러리, 뉴욕		1998 시몬 갤러리 초대전, 서울
		1995 종로 갤러리 개인전, 서울

<b>단체전</b>		<b>단체전</b>
2013 하태임, 조현선 2인전, 팔레드 서울,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li> <li>제7회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태화강 둔치, 울산</li> <li>한국인도 40주년 교류전 'The Spirit of Forms', 한국문화원, 인도</li> <li>'文蠹'전, 갤러리K, 서울</li> <li>한성 밴츠 자동차 '하태임 전', 서초오토갤러리, 서울</li> <li>gallery Artchill World Trade Park Art show, 인도</li> <li>'이두식과 표현'색-추상'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li> <li>'33인의 3호 삼삼한 그림전', CSP1110아트스페이스, 서울</li> <li>2013 신년하례전-'형색지교', 갤러리K, 서울</li></ul>		2012 제15회 방글라데시 비엔날레, 싹파카라 아카데미, 방글라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카잘스 음악제, 주한프랑스문화원18층 컨퍼런스 룸, 서울</li> <li>'K아트스타-美的 재전', 한경 갤러리, 서울</li> <li>'맥캘란과 함께 하는 11명의 예술가전',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li> <li>'추상화로 감상하는 색채 교향곡', 서울시립미술관, 서울</li> <li>'아트 포르테-온 더 블루 (ART FORTE-on the Blue), 가나아트, 부산</li> <li>2012 가정의 달 특별기획 '가족전', 양평군립미술관, 양평</li> <li>화가의 케익과 함께하는 윌튼 콘테스트 코리아 2012, 코엑스, 서울</li> <li>장애-비장애아동을 위한 유쾌한 예술치료축제 '아씨라비아', 장흥아트파크, 장흥</li> <li>Love is all around, 장흥아트파크, 장흥</li> <li>Smart Eye: 대중의 새로운 시선 7, 슈퍼리어 갤러리, 서울</li></ul>

- 힐링캠프- 아틀리에 입주작가 보고전, 가나아트센터, 장흥아트파크, 서울
  - '눈을 감으면'- 기아자동차&비컨갤러리 공동기획, 기아자동차 테헤란문점, 서울
  - Art for Interior by Seoul Auction, 현대백화점 토파즈홀, 서울
  - Korea-India: Contemporary Art Exchange Exhibition, 인도 문화원, Gallery AW, 서울
  -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 'Thankyou! 20x20', 갤러리 마노, 서울
- 신세계 아트페어-퍼플케익전, 서울
  - '한국미술 100만'전 남승미술관, 가평
  - '컬러에너지', 에비뉴엘 롯데, 서울
  - 제3회 시차전, 한국일보 갤러리, 서울
  - 'Hi · Phdc' 갤러리 호, 서울
- 2005 오사카 미술대전, 일본, 오사카
  - 헤라플리에-태평양화장품 기획초대, 서울
  - Modern Art today, 갤러리 가인로, 서울
  - 롯데아트페어, 부산롯데백화점 명품관, 부산
  - '남남북녀'전, 가나화랑 포럼 스페이스, 서울
  - '남한강 사람들의 그림이야기', 갤러리 아지오, 양평
- 2011 아트 포르테(삼익피아노 클라보레이션), 가나아트센터, 서울
  - 아트광주, 광주
  - KIAF2011(코리아 국제 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 'Trans-5': Curator Project, 홍익대 현대미술관, 서울
  - '화려한 심장', 한빛미디어갤러리, 서울
  - 갤러리 응 개관기념전, 갤러리 응, 대구
- 2010 G20서울정상회의 개최기념전, 국회도서관, 삼박물관(연장전시), 서울
  - KIAF2010(코리아 국제 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 상하이 아트페어, 중국, 상하이
  - 2010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여수
  - '색×예술×체험×2',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미술관, 고양
  - 12th Cutting Edge, 서울옥션, 서울
  - 'My Room My Atelier' 장흥 가나아틀리에 입주작가 졸업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 Color & Stripe, 장흥아트파크 기획전 (이경, 하태임 2인전), 장흥아트파크.장흥
  - '작지만 큰 그림'전, 신화랑 개관 33주년기념전, 서울
  - '놀이와 예술은 친구', 장흥아트파크, 장흥
  - 제7회 시차전, 갤러리 케레스타, 서울
  - '오감으로 느끼는 색깔여행', 장흥아트파크, 장흥
  - 2010 디자인 코리아 인 한남, 한남동&코엑스, 서울
  - '선 셋? 나! Sun-Set-Rise', CSP111 Art Space, 서울
- 2009 '장자 그리고 나비', 가나아트 부산, 부산
  - '오색동행'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 '如意圖' 뜻대로 되는 그림, 한국산업은행 창립 55주년 기념전, 한국산업은행, 서울
  - 'Spring Comes'展, 갤러리 가인로, 서울
- 2008 가나개관 25주년 기념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 'Merry Colorful Abstraction展',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 '세대공감'전, 경남 도립미술관, 창원
  - 'why?~추상미술'展, 우재길 미술관, 광주
  - 금호주택문화공간 개관전, 서울
  - 부산 롯데 에비뉴엘 컷팅 엣지, 부산
  - 'The Fashion', 세정아트갤러리, 부산
  - 제5회 시차전,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 2007 시카고 아트페어, 시카고, 미국
  - 화랑미술제(아트사이드), 예술의전당, 서울
  - 'KIAF'(코리아 국제 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 One & Only in the world, 사랑의 나눔경매- K옥션, 서울
  - 헤라- 아모레 태평양 후원 컬러전, 코엑스, 서울
  - 삼성프린트후원 프로젝트, 라스베가스, 미국
- 2006 '눈으로 그리는 그림' KT 후원 파리작업
  - SIAC -강남 아트페어전, 코엑스, 서울
  - '갖고 싶은 화가들의 그림'전, 덕터 박 갤러리, 양평

## Artist's Profile

### Park Eun-sun

#### Education

Graduated from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Painting  
Graduated from Corso di Pittura di Accademia di Belle Arti di Roma, Italy

#### Solo Exhibitions

2011 Park, EunSun-'Organic Space', 'gallery KAIST-Leehyeon Seoul gallery, Seoul  
2010 'Castle', gallery Lux, Seoul  
2009 Castle', The Chosun Ilbo gallery One, Seoul  
2006 Paju Book City-Asia Publication Culture & Information Center,Paju, Gyeong gi-do  
2003 Two Doors, Gallery Art PARK, Seoul  
2002 Window gallery, gallery Hyundai, Seoul  
2001 KCAF-Korean Arts Toward 21C, Seoul Art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  
2000 Gana Art gallery-Insa Art Center, Seoul  
2000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2000 Centre d'Art Contemporain-Passages, Troyes, France (invited from the Franch Ministry Culture & Centre d'Art Contemporain-Passages  
2000 gallery Artside, Seoul  
1998 Gana Art Space, Seoul  
1997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1992 Pallazzo Barberini, Rome, Italy

#### Group Exhibitions

2013 'contingency in necessity', Sa meon Space Museum, Beijing, China  
- 'KIAF2013-Korea International Art Fair-Art Park gallery, KOEX, Seoul  
- 2013 DIAS-Daejeon International Art Show, Korea Trade Exhibition Center, Daejeon  
- Carbon Footprint 2013', Insa Art Center, Seoul  
- Fashion Retail Fair 2013', SETEC, Seoul  
- Museum summer vacance ', In-Cheon Shinsaeghe gallery, In-Cheon  
- 'Come to play in Museum ', Gwang-Ju Shinsaeghe gallery, Gwang-Ju  
- 'MakeShop Top10', Make Shop Art Space, Paju  
- "BETWEEN STAIRS III-PERSONA", Space Ham, Seoul  
- 'Art Link Project', Insa Art Center, Seoul/  
Pyeongchang Alpensia Convention Center, Pyeongchang

2012 'Between Stairs II', Korea Technology Center, Seoul  
- 'Toka Art Factory Open Studio', toka art factory, Seoul  
- 'The Power of Art\_People', Tumen River Culture Total gallery, Do-Mun, China

- 2012 The 12th International New Media Festival in Seoul, Korean Film Archive, Seoul  
- 'Road Trip ', Moran Museum of Art, Gyeonggi-do  
- 'Between Stairs', Korea Technology Center, Seoul  
- 'Parentheses', Museum of Contemporary Art,

Hongik University, Seoul  
- 2012 Art Fair, COEX, Seoul  
- Chocolate Wonderland, Arts Center, Seoul

2011 Aesthetics of little things, Art User, Seoul  
- 'Art Castle', Garden Five, Spring Plaza, Seoul  
- 2011 SOAF, gallery Lux, Koex, Seoul  
- 'Homage to Morandi', Brain Factory, Seoul  
- Through the window' Space Ham, Seoul

2010 'Real Antenna', Space Ham, Seoul  
- 'Rain Shower', gallery Kimi, Seoul  
- '2010 Heavenly Dream' For sponsorship Haneulkkum school, Good Shepherd Church, Gyeonggi-do  
- 'Root'-Garden Five, Spring Plaza, Seoul  
- 'Art Edition', gallery Keumsan-BEXCO, Busan  
- 'Aesthetics of the space', Aram Nuri-Oullim Museum, Goyang Cultural Foundation, Gyeonggi-do  
- 'Asia Top Gallery Hotel Art Fair SEOUL 2010, gallery Keumsan-Hotel Shilla, Seoul  
- 'Museum of Midsummer Night' -MediaArt Project, LeeCheon Walljeon -Metropolitan Museum of Art, LeeCheon, Gyeonggi-do  
- 'Clock runs backwards', Metropolitan Museum of Art, LeeCheon, Gyeonggi-do  
- 'a story of coffee', gallery Search, Seoul  
- 'light & dark ', Space Ham, Seoul

2009 "The story of two cities", gallery Bandi, Seoul  
- 'Face. Face to Fac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 'Good peoples with Fujiwara Youjiro', Kurmsan gallery, Heiri  
- 'a part of me', Space Haam, Seoul  
- 'Beat in Two City',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nggiu, Gyeonggi-do  
- '2009 Green Cake Art Fair', alternative spaces Tim Preview, Seoul  
- commemoration exhibition for The 6th anniversary of open Yoo Art Space, Yoo Art Space, Seoul  
- 'reflection', Art gallery - underground passage of city hall squares, Seoul  
- 'A small fortune', Gallery Art PARK, Seoul  
- 'The series of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fantasy', gallery of Gangnam-gu Office, Seoul  
- My private collection, Gana Art Center Gallery Miroo, Seoul

2008 Heterotopia : 8spaces of Borges, Koex Gallery, Seoul  
- 'the bridge'- Gana Art Center, Seoul  
- 2008 3rd Blooming Art Fair, gallery H, Seoul  
- KIAF2008-Korea International Art Fair, KOEX, Seoul  
- creation anatomy-Gyeonggido Museum of Art, Gyeonggido  
- Korean Art of Today-Expression of Art, Hangaram Art Museum, Seoul Art Center,  
- Seoul Womans 2070, Korean Art Museum, Yong-in, Gyeonggi-do  
- '5senses'-Keumsan gallery, Heyri Art Valley, Paju-city, Gyeonggi-do

- 'Fun Fun kids world'-N gallery, Bun-dang, Gyeonggi-do

2007 'City is Art' -City Gallery 200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The Public Art Project, Seoul  
- DeaGu Art Fair 2007-Gallery Art PARK, DeaGu Expo, DeaGu  
- Gallery Art Fair 2007-Gallery Art PARK, Hangaram Art Museum, Seoul Art Center, Seoul 'look mirror', Gallery Art PARK, Seoul  
- 'Still Moving', space Noon, Beijing, China  
- 'Still Moving', Namyan-gju Film Studio, Korean  
- KIAF-Korea International Art Fair, KOEX, Seoul  
- Exhibition Jaemit interesting, Art Space Hyeon, Seoul  
- NIAF-Namsong International Art Fair, SungNam Art Center, Bundang

2006 Space project, Cyan Museum of Art, Yeongcheon-si, Gyeongsangbuk-do, Korea(December)  
- SIAC 'Open Art'-Park Ryu Sook Gallery, Koex  
- International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Incheon (August)  
- 'Come In'-German Contemporary Art & Interior Design , Korea Design Center, Bundang, Gyeounggido  
- 'Speed pain', 'Graduation' -The 2nd of Gana Atelier, Ganaart Center, Seoul

2005 'The magic of Art', gallery M, Taegu  
- 'Playground with culture', gallery Cheong-Ghe Cheon Institute, Seoul  
- Open Studio of The 2nd of Gana Atelier, Gana Atelier, Seoul  
- Dive into life, gallery Shinsaeghae, Incheon  
- Art Cologne-Sun Art Center, Gallery Sun, Koeln, Germany  
- PAAF 2005-The 1st Pocheon Asian Art Festival, "The Road ", Pocheon BanWol Art Hall, Pocheon  
- ChungDam Art Festival, Yooartspace, Seoul  
- The Magic of Art, Chosunilbo Museum of Art, Seoul

- Media+media plus -Park Eunsun, Kim Heeseon, Cyan Museum of Art, Yeongcheon-si, Gyeongsangbuk-do, Korea  
- Commemoration Exhibition of visit to Kyounggi-do "3070",Yong-in, Kyonggi-do, Korea  
- KIAF-Korea International Art Fair, KOEX, Seoul  
- Opening Commemoration Exhibition of Chungmu Gallery 'Five Senses Island' -Chungmu Gallery, Chungmu Art Hall, Seoul  
- 2005-Seoul Art Festival, Seoul Metropolitan Art Museum, Seoul  
- Nine One Man Show-Peoples of Atrelier, Gana Art Center, Seoul

2004-05 Composition & Center'-Seoul Art Center Special Exhibition II, Seoul Art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

2004 Indoor&Outdoor-Space Playing, Gana Art Center, Seoul,  
- Image Utopia, Hangeon Plaza gallery, Seoul

- Daughter in Fiction, The Woman Plaza, Seoul  
- Coldhearted Beauty, Noam gallery, Seoul  
- Light Collection, gallery Hundai Plus, Seoul  
- Small Art Museum-Strange&Beautiful,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chon  
- The New Understanding of Furniture, Insa Art Center, Seoul  
- Open Studio of The 2nd of Gana Atelier, Gana Atelier, Seoul  
- Greece Trip, Savina Museum, Seoul  
- KIAF-Korea International Art Fair, KOEX, Seoul  
- Seoul Living Design Fair, KOEX, Seoul  
- Joy of the Meditation, Seoul  
- Talking to the Wall, Marronnier Art Center of the KCAF, Seoul  
- Double Structure, gallery Cho, Seoul  
- Interesting Repitition-Double Space, Insa Art Center, Seoul

2003 City Net Asia, Seoul Metropolitan Art Museum, Seoul  
- Midscape, gallery Hundai plus, Seoul  
- Charity, Ssamzi Space, Seoul  
- Trick, Dong-Duk Art gallery, Seoul  
- Art & Playing, Seoul Art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  
- Changdong Open Studio, Changdong Art Srudio, Seoul  
- Prince & Princess, gallery Hyundai, Seoul

2002-03 Many sides 'Beautiful life, if imagine', gallery Moro, Seoul  
- 2002 Seoul Art Fair-gallery Hyundai, Seoul Art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  
- Inaugural Exhibition of Chandong Art Studio, Chandong Art Studio gallery, Seoul  
- Open Studio, Changdong Art Studio, Seoul  
- Mistery, Sabina Museum of Art, Seoul  
- Post-Material, Birla Academy of Art Culture, Kolkata, India  
- Post-Material, gallery Nandan, Santiniketan, India  
- Small Art Museum,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2001 2001Environmental Art Festival-La Citta' Ideale, Seoul Metropolitan Art Museum  
- Urban garden, Space Sadi gallery, Seoul  
- Three-person Show Post-material, gallery Artside, Seoul  
- he Recovery of the Art, Insa Art Center, Seoul  
- 9 Women's Vision & Version, Seo-ho Museum of Art, Yang-Pyoung,

2000 2000 Hope-SyeHwa, Gana Art Center, Seoul

1996 Les Trentes, Munwha-lbo gallery, Seoul  
- Expression of Emotion, Hyundai Art gallery, Seoul  
- The Shadow of Cloud, The End of The Monsoon, 83Symbols, gallery Goongjun, Kwangjoo  
- Situation & Symbol, Dansung gallery, Seoul

1994 Participated in Takako Saito's Performance, gallery Mudima, Milano  
- Color-Hour-Space, Kong-pyoung At Center, Seoul

- Symbols, Doukwon gallery, Seoul
  - Fotografia Artistica di Eventualista, Jartrakor, Rome
- 1993 Three-person Show, Il Quadri Portico, Rome
- Works of Peace 111 Artists, Bhak Young Duk gallery, Seoul
  - Terzo millennio, Accademia di Romania, Rome
  - Fiera di Roma, Fiera di Roma, Rome
- 1991 Arte per 1000, Sala Uno, Rome

## Lee Seung-won

### Education

school of visual arts (BFA) graphic design

### Selected Works

- 2013 fiftyYeom Sang-seop, reborn in seoul
- New Contemporary Art from China, arko museum
- 2012-2013 culture market annual report
- 2012 playground, arko museum
- movie perfect game art book
- 2011 yangpyeong art museum
- Museum Identity program
- culture market forum
  - ansan korean orchestra, ansan korean music orchestra
  - type: wall, soma museum
  - bring into the world, seoul, nanji art studio
- 2010 its story, IBM
- 2009 hana bank SI graphic
- design tube graphic, seoul design foundation
  - special edition\_animal farm, Minumsa
  - re-master pieces 2, znp creative

### Exhibitions

- 2013 month of culture at culture station284, seoul
- fiftyYeom Sang-seop, reborn in seoul at Exhibition Hall in seoul library
  - cross over, at samwon paper gallery, seoul
- 2012 poster issue, more please, take out drawing, seoul
- 2008 art directors club selected show, ADC, newyork
- 2006 black square project at visual arts gallery, newyork

## Ha Tae-im

### Education

- 2012 Graduated The Course of Hong-Ik University. Fine Arts Philosophy Doctor(Ph.D) (Titled: A Paintry Dynamism Effect of Nonlinear C-pattern Composition used by Color Bands)
- 1998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Paris [D.N.S.A.P]
- 1994 Ecole nationale des Beaux-Arts de Dijon [D.N.A.P]
- 1991 Graduated Seoul Sahmyook High School

### Solo Exhibitions

- 2013 Gana Contemporary, Seoul
- 2013 Ilho Gallery, Seoul
- 2012 INSA Art center, Seoul
- 2009 Gallery Artside, Beijing, China
- 2008 Gallery Franch-Made, Munich, Germany
- 2007 Cite International des Arts, Paris, France
- 2007 INSA Art center, Seoul
- 2006 Gallery Artside, Seoul
- 2005 Gallery Agio, Yangpyeong
- 2004 Cite International des Arts, Paris, France
- 2004 Gallery Artside, Seoul
- 2004 KAIST Grauate School of Management, Seoul
- 2000 Gallery Chosun, Seoul
- 1998 Gallery Simon, Seoul
- 1995 Gallery Jonlo, Seoul

### Group Exhibitions

- 2013 'Hataeim & Johyunsun' Exhibition, Palais de Seoul, Seoul
- Korea Galleries Art Fair, Coex, Seoul
  - 2013 Taehwa River Eco Art Festival, Taehwa-river, Ulsan
  - An Indo Korean Connect 'The Spirit of Forms', Korean Cultural Center, India
  - Text: Painting - Human, Gallery K, Seoul
  - Hansung Auto Gallery 'Ha Tae Im', Seocho Auto Gallery, Seoul
  - Gallery Artchill World Trade Park Art show, India
  - 'No. 3 of 33 Artists', CSP111 Art Space, Seoul
  - Exhibition 2013 New Year, Gallery K, Seoul
- 2012 15th Bangladesh Biennale, Shilpakala Academy, Bangladesh
- Casals Festival in Korea 2012, L'Institut Francais in Korea, Seoul
  - 'K Art Star - Beauty Festival', Hankyung Gallery, Seoul
  - '11 Artists with the MACALLAN', Gallery Artside, Seoul
  - 'Color Symphony', Seoul Museum of Art, Seoul
  - 'ART FORTE - on the Blue', Ganaart, Busan
  - 'Family' Exhibition, Yangpyeong Museum of Art, Yangpyeong
  - Wilton Contest Korea 2012 with a painter's cake, Coex, Seoul
  - Art therapy for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disability Festival, Jangheung Art Park, Jangheung
  - Love is all around, Jangheung Art Park, Jangheung

- Smart Eye, Superior Gallery, Seoul
  - Healing Camp - Gana Atelier Resident Artists Report Exhibition, Gana Art Center, Jangheung Art Park, Jangheung
  - "If you close your eyes..." - Kia Motors & Beacon Gallery, Kia Teheranno, Seoul
  - Art for Interior by Seoul Auction, Hyundai Department Store(Apgujeong), Seoul
  - Korea-India: Contemporary Art Exchange Exhibiton, indian Cultural Center, Gallery AW, Seoul
  - Korea Galleries Art Fair, Coex, Seoul
  - "Thank you! 20x20", Gallery Mano, Seoul
- 2011 Art Forte, Gana Art Center, Seoul
- 8th Variance Exhibition, Palais de Seoul, Seoul
  - Art Gwangju, Gwangju
  - 'KIAF'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Coex, Seoul
  - 'Trans-5': Curator Project, Hongik museum of art, Seoul
  - "Colorful Heart", Hanbit Media Gallery, Seoul
  - Lnaugural Exhibition, Gallery Woong, Korea
- 2010 G20 Seoul Summit Celebration Exhibition for The Korean Fine Arts, National Assembly Library, Seoul
- 'KIAF'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Coex, Seoul
  -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Yeosu, Korea
  - Shanghai Art Fair, Shanghai
  - "Color x Art x Play x 2", Museum Goyang SPART Complex & Park
  - "12th Cutting Edge", Seoul Auction, Seoul
  - "My Room My Atelier", Gana Art Center, Seoul
  - "Color & Stripe", Jangheung Art Park, Korea
  - Sun Gallery 33rd Anniversary Exhibition, Seoul
  - "Play and Art Friends" Jangheung Art Park, Korea
  - 7th Variance Exhibition, Gallery Cerestar, Seoul
  - "Feel the color of the senses travel", Jangheung Art Park, Korea
  - 2010 Design Korea in Hannam, Hannamdong & Coex, Seoul
  - "Sun-Set-Rise", CSP111 Art Space, Seoul
- 2009 "Zhuangzi and Butterfly", Gallery Gana Art Busan, Korea
- "Chromatic accompanied", Insa Art Center, Seoul
  - "Yeuido" Exhibition celebrates 55th anniversary of the foundin development bank, Seoul
  - "Spring Comes", Gallery Gainlo, Seoul
- 2008 "Merry Colorful Abstraction", Gallery Artside, Seoul
- 25th Inaugural Exhibition of Gana Art Center, Seoul
  - "Generation Sympathy", Gyeongnam Art Museum, Korea
  - "Why? Abstract Art!", Ugegil Art Museum, Korea
  - Lnaugural Exhibition Kumho Culture House Space, Korea
  - Avenuel Lotte, Busan, Korea
  - "The Fashion", Sejung Art Gallery, Busan, Korea
  - 5th Variance Exhibition, Dongduk Art Gallery, Seoul
- 2007 Chicago Art Fair, Chicago
- KIAF(Korea International Art Fair), Coex, Seoul
  - Seoul Art Fair, Seoul Arts Center, Seoul

- 2006 "Painting with the Eyes" KT Sponsoring Paris Project SIAC - Kangnam Art-Fair - Coex
- "Wanting to have the artist pictures" Exhibition, Dr Park Gallery, Korea
  - New World Art Fair - "Purple Cake" Exhibition, Seoul
  - "Korean Art 100 men" Exhibition, Namsong Art Center, Gapyeong
  - "Energy of Color", Avenuel Lotte, Seoul
  - 3th Variance Exhibition, Hankook Ilbo Gallery, Seoul
  - "Hi - Phdc", Gallery Ho, Seoul
- 2005 L'ADFE Korean Present 'NamNamPoukNyo' Exhibition, "Nam Nam Buk Nyu", Gana Gallery "Forum Space", Seoul
- Osaka Art Fair, Osaka, Japan
  - "HERATELIER", Seoul
  - "2005 LOTTE ART FAIR", Busan
  - Modern Art today, Galerie Gainlo, Seoul
  - "Pictures of people talking Namhangang", Gallery Agio, Korea
- 2004 "Cutting Edge", Seoul Auction, Seoul
- "Parallex and the direction of the wind" Exhibition, Insa Art Center
  - Manife Exhibition, Seoul Arts Center, Seoul
- 2003 "INTRO" Exhibition, Gallery In, Seoul
- "CUBE&TUBE" French Culture Center, Seoul
  - "AL Project", Chongshin University Library, Seoul
  - "Nature and Ecology" Exhibition, Yangpyeung Museum of Art.
- 2002 'In the Han River to the Rhine', Gallerie Forum, Wiesbaden, Germany
- The skill of Modern Art, the vestige Exhibition, Yeulin Gallery, Busan
  - "PARIS-SEOUL" Maison des Methalo, Paris
  - Paris, Korea - 2002 Young Artist 9 people Gallery Liz, The South Seas
  - "South River People" Yangpyong Museum of Art For the new navigation Young adults Art Exhibition
- 2001 The world's "water" Exhibition, Seoul
- Metropolitan Museum of Art, Seoul
  - Project Dream, Conte, Museum, Jonwon Gallery, Korea
  - MANIF SEOUL ART FAIR, Seoul Art center, Seoul
  - Inaugural Exhibition of kyoungki Art Fondation center '5 Artistes', Gallery Agio, Yangpyeong, Korea
  - 10artists with Collection Doctor Park' Collection Doctor Park, Korea
- 2000 Busan International Art-Fair, Busan, Korea
- "South River People" Gallery Agio, Yangpyeong
  - "+-" Exhibition Gallery Yukyung, Seoul
  - Invitational Exhibition 'Paris', Dol Art center, Seoul
  - Inaugural Exhibition of Art Yangpyeong Museum of Art, Korea
- 1999 Monaco Art Fair, Monaco
- "Salon de Montrouge", France
  - "Salon de Mai" (Espace Eiffel Brantly), Paris
  - Chungdam Art Fair, Galerie Chosun, Seoul

- 'Bonjour 2000', Seoul press Center-Seoul Galerie, Seoul
  - Jeunes Peintre Coéens à Paris, Centre culturel Coréen, Paris
  - eunes Peintre Coéens à Paris, Galerie Gana-Baeubourg, Paris
- 1998 Cheongdam Art Fair, Simon Gallery, Seoul
- Gallery Gauche, Paris
  - Salon de Mai, Espas Eiffel Brantly, Paris

##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과정

현수정 \_ 큐레이터

### 1. 공단, 예술로 채워진 공간되기

예술이 흐르는 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 혹은 활동공간에 작가들의 작품 설치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예술을 함께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감성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경기문화재단의 기획 사업이다.

레이먼드 윌리엄즈 (Raymond Williams)에 따르면 문화란 '한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적 특정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며, 미학적이고 지적인 요소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여가나 축제 및 우리의 일상적인 것도 문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한다.

결국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터를 비롯한 일상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자체가 문화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산업단지외 공단 안, 그 곳 안에서 만들어 지는 문화를 살려 이것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본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환경 미화 혹은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을 찾아 채우기 형식으로 미술 작품을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 공간 안에 작품이 녹아들게 하여, 새로운 예술 공간으로 재생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참여 작가는 작품 시안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설치까지 재단 및 참여 기업과 함께 삼각 구도로 충분한 의사 전달과정을 거쳐 합의된 결과물로써 작품을 도출하였다.

설치된 작품은 근로 공간에 정상급 작가의 예술작품이 소장된다는 자부심 그것 이상으로 근로자들에게 활력소를 부여하고, 내재되어 있는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을 제공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참여 기업은 근로자들의 피로를 덜고 심리적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반복적인 작업 환경의 권태로움을 감소시키고 경쾌하고 안정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산 능력을 보다 높힐 수 있다.

예술이 흐르는 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근로자들의 자연스러운 일상 문화 안에서 하나의 불씨가 되어 예술이 꽃 피우기를 기대한다.

### 2. 닫힌공간에서 예술로 열린공간되기

대부분 공단의 경우 산업체들이 빠르게 밀집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심리적으로 닫힌 공간의 인상을 받게 된다. 2013년 예술이 흐르는 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입체 조형물이 아닌 벽화 설치를 통하여 다양한 공간 표현을 시도함으로써 열린 공간이자 새로운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공공미술로써 벽화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1) 공간과 (2) 그리는 주체인 작가, 그리고 (3) 상당한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위 요소는 전통적 벽화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 벽화 제작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예술이 흐르는 공단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도 위 세 요소를 충족하여야 했는데 벽화가 그려질 '공간'과 벽화 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측면은 재단과 기업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는 주체인 '작가'의 경우, 본 2013년도에는 참여 작가가 작품 시안을 제시한 후, 보다 최적화된 벽화 제작을 위하여, 작가는 디렉터의 역할을 하고, 예술가로 구성된 전문 시공팀이 작가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현대 미술 작품으로써의 대형 벽화 제작 방법에 대하여 자료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결국, 벽화 관련 관계자의 자문 및 이전 사례에 대한 경험칙에 의하여 진행이 되어야 했다. 작가의 입장에서는 기존 작품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새로운 작품 시안을 발표하고 제작해야 하였으므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을수 밖에 없었다. 2013년도 공공미술은 다음의 부천테크노파크, 파주 문발공단 (삼광사 / 갑우문화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 부천 테크노 파크

부천테크노파크는 2012년도에 이어 근로자들의 생활공간인 야외공간인 두 벽면에 작업이 진행되었다. 서로 마주보는 벽면은 작가 박은선에 의하여 작품 <유기적 공간>으로 재탄생 되었다. 벽화 작업 과정은, 일차적으로 세척과 벽면 보수가 이루어 졌고, 이어서 프라이머 작업 이후 밀 배경으로 그라데이션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 고층의 폭이 넓은 벽면에서 진행되어서 크레인과 아비사 설치후 작업이 진행 되었다. 공장동의 경우, 골이 지고 벽면이 커서 프라이머 도포는 분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일하게 그라데이션으로 이루어진 부천의 경우, 페인트의 공기 압축 분사 방식을 이용한 그라데이션 작업시 페인트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차량 모두 이동시켰으며, 건물 및 주변 작품에 랩핑 작업이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였다.

벽면 넓이 24m 높이 36m 의 외부 벽에 작가의 작품이 시안 그대로 재현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온도, 습도, 날씨)를 고려하여 기존 평면 회화 작품을 제작하는 방법 이상의 기술이 요하게 된다. 작품 스케치 방법의 경우, 어두운 시간을 선택하여 벽화가 설치될 장소에 빔 프로젝트를 투사하여서 그 선에 따라 스케치 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벽면이 너무 넓고 빛이 쏘여지는 면과 그 비율이 맞지 않거나, 혹은 빔에 쏘여진 선이 너무 굵어 정확한 스케치가 불가능하였다. 결국, 건물에 부분적으로 수평수직으로 모눈종이처럼 선을 그은 후, 작품 시안과 대조하면서 한 칸 한 칸 비율에 맞게 스케치하는 방법과 이를 기본으로 하여 목측하는 스케치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작업이 이루어지는 벽면은 창문이 많지 않아 아시바를 지지하고 고정하는 장치 부착이 어려웠으므로 ‘c’ 자 형태로 설치한 후 안전을 위하여 그물망을 자체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맞은편 상가가 밀집된 부대동 벽화의 경우, 앞선 공장동과 동일하게 세척과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프라이머 작업 이후, 가로 18m, 세로 25m 의 벽면에 크레인이 동원되어 스케치와 페인트 작업이 이루어졌다. 스케치의 경우, 벽면과 벽면 사이, 또는 창문과 창문 사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벽면 전체를 모눈종이 형식으로 분할한 후, 건물 형태를 스케치하였다. 원색조의 작품 시안으로 발색이 좋지 않은 경우, 2-3차례 덧칠하여 완전한 원색의 색감을 내었다.

## 파주 문발공단, 삼광사

파주 문발공단 초입부에 위치한 ‘삼광사’는 건물 자체가 매우 노후 되어, 전반적인 건물 보수가 선행되었다. 건물의 네 개의 벽면과 그 옆 건물과 이어져 휘장처럼 덮여있는 천막까지 공기와 물을 이용한 고압세척기로 세척하여 오염물을 모두 제거 하였다. 또한, 벽면뿐만 아니라 창틀, 옥상까지 금이 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밀히 관찰하여, 금간 곳은 완전히 메꾸고 갈아 내었다. 기본적으로 틈새가 있거나 방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천시 빗물이 건물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그림이 그려진 벽면으로 배출되면 작품에 큰 손상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집중적으로 보수한 후 작업 하였다.

다음은, 습기를 완전히 말린 뒤(약 1~2일 소요), 프라이머를 옥색으로 조색하여 작품 시안이 그려질 건물 네 면에 롤러로 도포하였다. 작품 시안은 하태임 작가가 컬러밴드의 구성을 컴퓨터로 작업하여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도출하였다. 이렇게 얻은 시안은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더 단순화 되었고 색채 중심의 강렬한 최종시안을 얻을 수 있었다. 작품 스케치의 경우, 건물 내 벽들을 그리드로 창문을 중심으로 목측하여 컬러 밴드가 들어가는 위치는 대략적으로 테이프를 위치를 잡아 스케치 하였다.

컬러밴드의 채색작업은, 건물 바탕 색상이 옥색으로 컬러밴드 채색 중 밀 바탕색이 배어 나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 3회~6회 정도 색을 올려 색감을 내었다. 노랑색과 주황색의 경우 10회 정도 올렸음에도 계속해서 보완이 필요하였다. ‘삼광사’라고 쓰여진 간판의 경우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어 사포로 갈아내는 워싱작업을 거쳐 수퍼젯소로 도포하였다. 이후 외벽은 충분히 건조 시킨 뒤, 약 5회 가량 페인트를 칠하고 건조 한 후 코팅하여 마무리 하였다.

안타까웠던 점은 하태임 작가의 경우, 캔버스를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아주 희석된 농도의 물감을 수차례 도포하여 투명한 컬러밴드들이 중첩되는 것이 특징인데, 현장의 벽면은 90도 직각으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중첩되는 작품의 본래 이미지는 포기 할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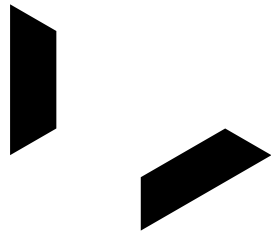
## 파주 문발공단, 갑우문화사

삼광사 다음으로 위치한 갑우문화사 공장동 외벽의 기초(밀) 작업은 앞선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고압세척기로 세척한 뒤, 깨끗이 닦아내어 오염물을 제거하였고, 이후 완전히 건조한 후 진행하였다. 본 작업은 11월 말에 시작되었는데, 햇빛이 들지 않는 위치여서 보조적으로 열풍기로 건조 하고 흑시라도 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후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완전히 건조하였다.

작품 스케치의 경우, 건물 상측에 1m간격으로 못을 박고 먹이 묻은 실을 늘어뜨려서 수직 그리드를 만들고, 좌우면에도 동일하게 먹이 묻은 실을 튕기는 방식으로 수평 그리드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건물에 수평수직으로 모눈종이처럼 먹선을 그은 후, 작품 시안과 대조하면서 한 칸 한 칸 비율에 맞게 목측하여 스케치 하였다.

원 모양의 도식적인 작업의 경우, 건물에 못을 박아 그것을 축으로 하여 콤파스처럼 실을 돌려 스케치 하였다. 이후 자동차 용 페인트인 우레탄 페인트로 2회~3회 가량 채색하였다. 마지막으로 PVC 파이프를 이어서 만든 조형물에 페인트를 도색한 후 벽면에 부착하였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일정



2012년 12월

- 2013년도 예술이 흐르는 공간 예산 수립

2013년 1-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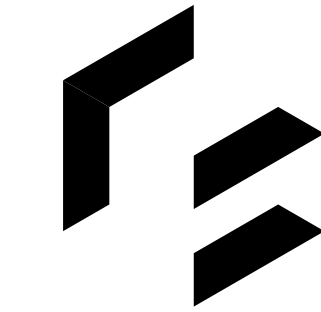
- 사업기본계획안 수립
- 2013년 사업 참여 공문 발송
- 공단을 대상으로 홍보자료 발송 (온라인 / 오프라인) 리플렛 및 도록 우편 발송

4-5월

- 경기도내 공단 및 산업단지 현장 탐방 및 사업 소개
- 현장 리서치 및 관계자 면담

6-7월

- 공공미술 자문단 구성 계획안 준비
- 공공미술프로젝트 업무협약 ( 판교, 부천 )
- 부천테크노파크 공공미술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 판교테크노밸리 공공미술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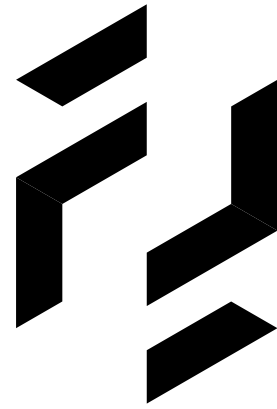
8월

- 8.1 - 8.11
  - 부천테크노파크 공공미술 전시 공간 컨셉트 구체화 방안 회의 (8.2)
  - (최정화+조민석 작품 설치 후, 추가인프라 구축 검토)
  - 파주 문발공단 1단지 / 2단지 방문 (8.7)
  - 파주 문발공단 협의회 회의 (8.8)

- 8.12 - 8.18
  - 부천테크노파크 공공미술 전시 공간 컨셉 구체화 및 작가 조사
  - 파주 문발공단 공공미술 사업 관련 전시장소 조사 및 회의 (8.16)

- 8.19 - 8.25
  - 부천 테크노파크 2차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계획안 수립 및 작가 조사
  - 파주 문발공단 내, 개별 기업 방문을 통한 공공 미술 사업 가능 장소 조사

- 8.26 - 8.31
  - 부천 테크노파크 2차 '공공미술 프로젝트' 회의진행. (8.29)
  - ( '오픈에어뮤지엄' 공간 컨셉트 및 실행방안 구체화 )
  - 부천테크노파크 참여작가 조사 검토. (박은선 작가 외 4인)
  - 파주 문발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관련 전시장소 조사를 통한 공간 컨셉 회의 (8.27)



9월

- 9.1 - 9.8
  - 부천 테크노파크 2차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작가, 박은선 확정. (9.3)
  - 파주 문발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공간 확정 및 작가 조사. (-9.6)

- 9.9 - 9.15
  - 부천 테크노파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박은선 작가 회의. (9. 9)
  - 파주 문발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관련 (사)문발공단협의회 협의 (9. 12)

- 9.16. - 9.30.
  - 부천 테크노파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박은선 작가 시안 회의
  - 1차 회의 : 9.23 (월)
  - 2차 회의 : 9.30 (월), 부천테크노파크
  - 파주 문발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 협력기업 선정 및 회의
  - ( 작품 설치 장소 결정은 협의회 회의 후, 결과 발표 예정 )
  - 파주 문발공단 참여기업 섭외 > 삼광사(확정), 갑우문화사(협의중)
  - 문발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작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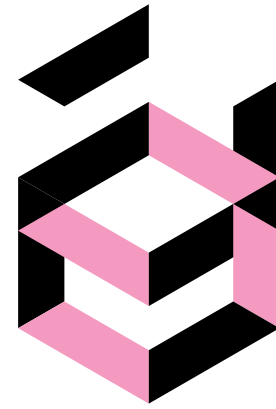
10월

- 10.1 - 10.6
  - 파주 문발공단 참여기업 : 삼광사 (확정), 갑우문화사 (협의중)
  - 문발공단 참여 대상 작가 조사 (하태임 외 4인)

- 10.7 - 10.13
  - 부천 테크노파크 '공공미술 프로젝트' 박은선 작가 작품 시안 회의 (10. 8)
  - 파주 문발공단 참여기업 ( 삼광사 / 갑우문화사 ) 확정. (10.7)
  - 파주 문발공단 작가 섭외 (하태임 외 4인)

- 10.14 - 10.20
  - 파주 문발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 협의 (10. 15)
  - 파주 문발공단 참여작가 선정 완료 (하태임, 이승원)
  - 공공미술 프로젝트 - 벽화 안료, 작업방식 및 시공단체 조사

- 10.21 - 10.31
  - 벽화작업 시공업체 및 시공방법 조사
  - 벽화작업 (수입) 안료 조사
  - 파주 문발공단 공공미술 참여작가와 현장 방문(하태임, 이승원) (10.24)
  - 벽화 작업팀 (예술가로 구성) 섭외 완료 (10.29)
  - 박은선 작가작품 시안 검토 : 부천테크노파크(10.31)



11월

- 11.1 - 11.10
  - 파주, 삼광사 - 하태임 작가 작품 시안회의 (11.1)
  - 파주, 갑우문화사 - 이승원 작가 작품 시안회의 (11.5)
  - 공공미술 사진 기록 : 이현석
  - 부천테크노파크 벽화작업 관련작가 회의 - 박은선
  - 파주 문발공단 벽화작업 관련작가 회의 - 하태임, 이승원

- 11.11 - 11.17
  - 작품 최종시안 및 교부신청서 제출 ( 박은선, 하태임, 이승원 ) (11.12)
  - 부천 테크노파크 공공미술 프로젝트 밀착업 시작 (건물 보수 및 세척, 방수 처리, 프라이머) (11.12)
  - 파주 문발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 밀착업 시작 (건물 보수 및 세척, 방수 처리, 프라이머) (11.12)
  - 공공미술 사진 기록 : 이현석

- 11.18 - 11.24
  - 부천테크노파크 벽화작업 시작 (11.19)
  - 파주 문발공단, 삼광사 벽화작업 시작 (11.19)
  - 작가와 평론가 회의
  - 박은선 작가+조숙현 선생님 (11.18)
  - 이승원 작가+조두호 선생님 (11.21)
  - 하태임 작가+이슬비 선생님 (11.10)
  - 공공미술 사진 기록 : 이현석
  - 예술이 흐르는 공간 도록 디자인 회의

- 11.25 - 11.30
  - 파주 문발공단 갑우문화사 밀착업 (건물 보수 및 세척, 방수 처리, 프라이머) 시작 (11.21)
  - 파주 문발공단 갑우문화사 벽화작업 시작 (11.25)
  - 공공미술 사진 기록 : 이현석



12월

- 12.1 - 12.9
  - 부천 테크노파크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장동 작품 설치 진행.
  - 파주 문발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 삼광사 작품 설치 완료 (12.2)
  - 파주 문발공단 공공미술 프로젝트 갑우문화사 작품 설치 완료 (12.4)
  - 공공미술 사진 기록 : 이현석

- 12.10 - 12.20
  - 예술이 흐르는 공간 도록 및 리플렛 디자인 1차 시안제출 (12.12 ~ 18)
  - 공공미술 개막식 준비
  - \* 파주 문발공단 공공미술 개막식 (12. 19)
  - 공공미술 사진 기록 : 이현석

- 12.21 - 12.31
  - 부천테크노파크 공공미술 벽화 마무리 작업.
  - 예술이 흐르는 공간 도록 최종시안제출 (12.24)
  - 예술이 흐르는 공간 도록 및 리플렛 최종시안 제출 제작 (12.24)
  - 도록 및 리플렛 제작 (12.27)
  - 공공미술 사진 기록 : 이현석

## Industrial Complex, Becoming A Space Brimming with Art

Hyun Soo-jung \_ Curator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is a public art project designed by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to transfigure a laborer's work space and space for their activities into an emotional space where they can enjoy and relish art.

For Raymond Williams, culture refers to "a collective, specific way people live in certain times", inclusive of not only aesthetic, cerebral elements, but leisure, festivals, and quotidian things.

This means all phenomena taking place in our working as well as all everyday spaces can be cultural factors. If so, how can we express a culture pertaining to industrial complexes artistically?

This public art project instigates new artistic spaces by making artworks melt away into pre-existing spaces rather than merely installing them to beautify or fill such spaces. To do this, participating artists produce work through a process of planning, producing, and communicating within a triangular structure of artists, foundation, and firms.

Artworks set in an industrial complex lend vitality to laborers, and work as a driving force to recover their dormant emotions, beyond the meaning of works of art by summit-level artists being simply displayed at their work place. Through these processes, participating companies can lessen the fatigue workers feel, reduce boredom in their recurring work environments by inducing new psychological change, and raise production efficiency through a cheerful, stable working environment.

The public art project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is expected to be the ignition of art blooming in our workers' quotidian culture.

As industries are densely crowded in most industrial complexes, we get a psychological impression that they are closed.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2013 Public Art Project has created open spaces and new spaces for communication through mural installation, not three-dimensional artwork.

Such elements such as 1) space, 2) the artist as subject of painting, and 3) finance, have to be solved first to set a wall painting as public art. The elements above are indispensable not only in traditional wall painting but also in contemporary wall painting. The three elements above should be met in the project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as well. The "space" where a wall painting would be painted and the "necessary expenses" for painting the wall painting wer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foundation and the firm. After the participating "artist" as subject made a draft proposal for the 2013 project, he or she assumed the role of director and the special execution team including other artists practiced the work.

The hardest aspect of putting ahead this project was it was difficult to find any information and material on how to produce supersized murals as a work of contemporary art. The wall painting work should be dependent on consultation with those concerned with wall painting and experience of previous cases. As the artists should present draft proposals for new works and produce works based on them through this project, not submitting already completed pieces, they felt a certain psychological burden. The 2013 Public Art Project was conducted at BucheonTechnopark and Paju Munbal Industrial Complex (Samkwangsa / Gabwoo).



찾아가는 공연



창작집단 노니



이한철(퍼커션 괘지웅)

평범한, 일상적인, 보통의 일상을 바꾸는 작은 노력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2013년에는 군포SK벤티움에서 런치콘서트로 '창작집단 노니'와 가수 이한철을 만났습니다.

날짜	시간	출연진	장소	공연형태
9월 25일(수)	12:20 ~ 13:10	창작집단 노니	군포SK벤티움 광장	런치콘서트
10월 16일(수)	12:20 ~ 13:10	이한철(퍼커션 괘지웅)	군포SK벤티움 로비	런치콘서트

근로자 문예동아리지원



부천 테크노파크 합창단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문화예술동아리 생성을 지원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부천테크노파크 내 합창단을 선두로 수요일 저녁마다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으며, 판교에서는 기타(핑거스타일, 포크송스타일) 문화동호회와 색소폰 문화동호회를 만들어 매주 목요일 동아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판교 기타(핑거스타일) 문화동호회



판교 기타(포크송스타일) 문화동호회



판교 색소폰 문화동호회



CEO문예아카데미



기업의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업의 문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시와 음악, 미술, 역사, 동양철학, 전통 음악 등 다양한 주제로 예술가와 인문학자 나서서 CEO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산업단지의 문화 환경에 관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천테크노파크	순서	강의주제	강사	비고
	제1강	시와 노래의 만남	정희성(시인), 김현성(가수)	5.24(금)
	제2강	예술가와 함께하는 춤이야기	안은미(안은미컴퍼니)	6.28(금)
	제3강	예술, 그 창조의 드라마	정윤수(칼럼리스트)	7.26(금)
	제4강	공공미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태호(경희대교수)	8.23(금)
	제5강	주역으로 우리문화 읽기 1	최정준(동방문화진흥회부회장)	9.13(금)
	제6강	주역으로 우리문화 읽기 2	최정준(동방문화진흥회부회장)	10.18(금)
	제7강	우리음악 이야기	윤호세	11.22(금)

판교테크노밸리	순서	강의주제	강사	비고
	제1강	예술, 그 창조의 드라마	정윤수(칼럼리스트)	7.19(금)
	제2강	시와 노래의 만남	정희성(시인), 김현성(가수)	8.23(금)
	제3강	예술가와 함께하는 춤이야기	안은미(안은미컴퍼니)	9.27(금)
	제4강	왜, 인문학인가?	강진갑(경기대교수)	10.18(금)
	제5강	주역으로 우리문화 읽기	최정준(동방문화진흥회부회장)	11.15(금)

군포SK벤티움	순서	강의주제	강사	비고
	제1강	시와 노래의 만남	정희성(시인), 김현성(가수)	8.19(월)
	제2강	예술가와 함께하는 춤이야기	안은미(안은미컴퍼니)	9.23(월)
	제3강	주역으로 우리문화 읽기	최정준(동방문화진흥회부회장)	10.23(수)
	제4강	시선을 지배하는 자가 미술, 세상을 지배한다	박우찬(경기도미술관학예팀장)	11.20(수)

**참여공단**

부천 부천테크노파크  
파주 갑우문화사  
파주 삼광사

**참여작가**

박은선  
이승원  
하태임

**평론**

이슬비  
조두호  
조숙현

**주최**

경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도록디자인**

이승원 seungwonlee.com

**사진**

이현석

**주관**

경기문화재단

**번역**

아트애텍스트

**기획**

문예지원팀  
양원모 (팀장)  
박정호

**인쇄**

썬신사고하이테크

**총괄 큐레이터**

김종길

**발행인**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큐레이터**

현수정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일**

2013년 12월 27일  
© 2013 경기문화재단

※ 예술이 흐르는 공단, 2013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는 벽화 작업 조건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 작가 외 예술가 중심으로 구성된 현장스텝이 함께 하였습니다.

**본 도록은 경기문화재단**

<2013예술이 흐르는 공단>을 위해 발행하였습니다.

본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도판의 저작권은 © 이현석 에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425-86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1116-1)  
T. 031-231-7232 F. 031-236-0283 <http://www.gpcf.or.kr/>

**Locations**

Bucheon - Bucheon Technopark  
Paju - Design & Printing Group Gabwoo  
Paju - Samkwang Printing Company

**Artist**

Park Eun-sun  
Lee Seung-won  
Ha Tae-im

**Critical essays**

Lee Seul-bi  
Cho Doo-ho  
Cho Sook-hyun

**Host**

Gyeonggi-do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rts Council Korea

**Graphic Design**

Lee Seung-won

**Photograph**

Lee Hyun-suk

**Organized b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Translation**

Art&Text

**Planning**

Grants for Art Department  
Yang Won-mo \_ Senior Manager  
Park Jung-ho

**printing**

sinsagohitech

**Publisher**

Ohm Ki-young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Chief Curator**

Gim Jong-gil

**Curator**

Hyun Soo-jung

**Date of Publishing**

2013.12.27.  
© 2013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ISBN**

978-89-999-0020-4 03650

※ With the participating artist as central figure the staff - including other artists and those working at the scene - joined in the mural work to improve its working conditions in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2013 Public Art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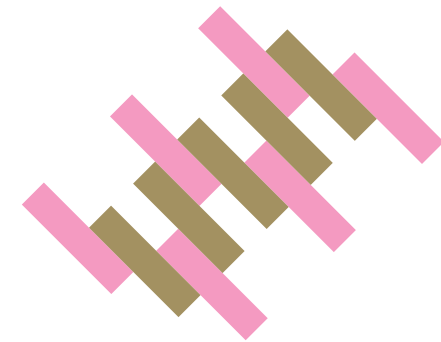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442-835 178 Ingye-Ro, Paldal-Gu, Suwon-City, Gyeonggi-Do, Korea  
T. +82)31-231-7232 F. +82)31-236-0283

# 2013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public art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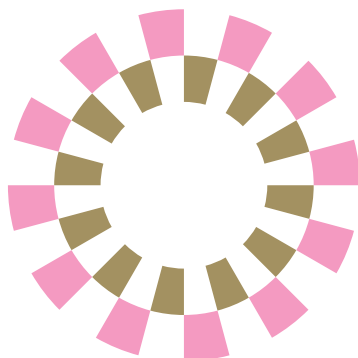
2013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public art  
project

Park Eun-sun  
Lee Seung-won  
Ha Tae-im



주최

경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문화재단

협력

부천테크노파크

갑우문화사

삼광사

